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신문방송학석사학위 논문

양계초의「신민설」의 형성배경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 한·중 신문을 중심으로

2014년 2월

부경대학교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마 문 가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

양계초의「신민설」의 형성배경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 한•중 신문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영환

이 논문을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2월

부경대학교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마 문 가

마문가의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2월

주 심 철학박사 김무규 (인)

위 원 문학박사 남인용 (인)

위 원 철학박사 김영환 (인)

< 목 차 >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방법 및 선행연구 ····· 6

제2장 본론 ····· 10

제1절 「신민설」형성과정과 배경분석 ····· 10
1. 신민 개념의 유래 ····· 10
2. 신민사상 형성의 역사·문화적 배경 ····· 11
3. 신민사상 형성의 이론적 배경 ····· 13

제2절 「신민설」의 내용과 성격 분석 ····· 16
1. 권리의무론의 내용과 성격 ····· 16
2. 국가론의 내용과 성격 ····· 17
3. 경쟁론의 주요내용 ····· 19
4. 자유론의 주요내용 ····· 20
5. 도덕론의 주요내용 ····· 22
6. 상무정신 주요내용 ····· 25

제3절 「신민설」이 한·중 양국에 미친 영향 분석 ····· 27
1. 중국 사회 언론에 미친 영향 ····· 27
1) 신문에서 보이는 자유론 ····· 30

2) 신문에서 보이는 경쟁론 ····· 32
3) 신문영역 종사를 대상으로 한 도덕론 ····· 33
4) 신문 문체의 변화 ····· 34
5) 마오쩌동 신민학회 창립에 끼친 영향 ····· 35

2. 한국 사회 언론에 미친 영향 ····· 37
1) 구한말 시대 언론인 및 신문에 미친 영향 ····· 37
2) 구한말 신문에서 보이는 애국이론 ····· 44
3) 구한말 신문에서 보이는 민지, 민권사상 ····· 46
4) 구한말 신문에서 보이는 신민 형성의 조건 ····· 47

제3장 결론 및 한계점 ····· 50

참고문헌 ····· 53
부록 ····· 62

< 표 목 차 >

<표 1> 편명, 저작연대, 《신민총보》의 호수
『신민설』의 목차 및 저술 시기 ····· 62
<표 2> 대한제국시기 양계초 논설 관련 자료 목록 ····· 63

A study on the background and influence of the Liangqichao's Xinminshuo: Focusing on Korean and Chinese newspaper

MA WENJIA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Liangqichao is learned and versatile, a master both in Chinese and Korean culture, and an Encyclopedia scholar. His thought derives from many field, such as,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From the end of the 19 century to the early 20 century, trying to rescue the crisis of national subjugation and genocide, to create new polictical structure, the Chinese people find a new way-to renew nation and create new citizens. Thus, in 20 century, he is one of the academic founders in China. However, his New Chinese Ethical Thoughts, which puts forward the cultural issue of human modemization and re-construction of Chinese traditional ethnics and ideologies under the modern conditions, which establishes his important position in modern ethnics and ideologies history in China. The thesis takes "Xin minshuo"as the main research material and tries to dig up the profound thoughts of ethnics and ideologies from it. On one hand, we tries to fully grasp the value of Liangqichao's New Chinese Ethic

Thought and give it scientific position. On the other hand, through the development of Chinese and Korean newspaper's analysis Liangqichao's Xinminshuo korea and China on the development of modern journalism had those affected.

This study mainly investigates the background and character of the Liangqichao's Xinminshuo, focusing on Korean and Chinese newspaper. This study is divided into three parts. The first part is the introduction: study ttarget, research status, the methods of research and the research status quo of this issue. This is the basic of the research. In Part Two, we introduce the cultural background and theoretical origin of Liangqichao's Xinminshuo. In part three, Korea and China, the two subjects of the impact analysis Xinminshuo. Libertarian seen in newspapers, gyeongjaengron seen in newspaper, engaged in newspaper areas targeted at dodeokron, stylistic changes as newspapers, Mao jjeodong found the society of subjects influence, impact of social media on China. And, impact of social media on Korean. Influence of age guhanmal on journalists and newspaper, patriotic theory of age guhanmal looks at newspaper, the wisdom looks at newspaper, the conditions of formation of subjects looks at newspaper.

keyword: Liangqichao, Xinminshuo, Korean, Chinese, newspaper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양계초(梁啟超 1873년~1929년)는 중국 근대사를 대표하는 걸출한 사상가이며, 정치가이며, 철학자이며, 유신운동가이며, 교육가이자, 언론인이었다. 양계초의 저술과 번역문 등은 당시 중국의 정치, 문화, 사회 분야의 개혁운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큰 영향력을 미쳤다. 특히 개화기 조선의 애국계몽사상주의 언론인들에게 강렬한 영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청말 민초(清末民初)시기는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정치적 차원의 문제와 외부적으로는 서양 강대국의 침략이라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 중첩된 상황으로, 중국의 지식인들은 생존과 구국을 위해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여야 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19세기 말 아편전쟁과 청일전쟁을 겪은 후 중국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지식인 집단은 바로 강유위(康有為), 양계초를 비롯한 유신파[1](維新派)계몽주의 지식인들이었다. 보수파(保守派)의 낙후성에 대항하여 강유위, 양계초를 비롯한 유신파들은 진보적 개량주의 사상, 계몽주의사상을 형성시킨다. 그들은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경제적 부분의 “자강“을 목적으로 양무운동[2](1861년~1894년)을 전개하였다.

---

1) 유신파란 청나라말기 자산계급 개량주의자들로 담사동(譚嗣同), 강유위, 양계초로 대표되는 지식인들로 서구의 선진적 과학기술을 배우고 구국, 자강의 내용을 주장하며, 청나라 광서제(光緒帝) 정치차원에서 강하게 지지를 얻은 세력이다. 서태후(慈禧太后)를 비롯한 보수파들은 유신파와 대항하는 정치당파로 존재하였고 보수파들은 정치적인 지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蔡尚思, 方行 著,『譚嗣同全集』北京 中華書局, 1998年

2) 1861년~1894년 증국번(曾國潘), 이홍장(李鴻章)등의 한인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양무파(洋務派)로 추진하게 된 양무운동은 서양 근대적 과학 기술을 보급하고 경제 발전을 통해 자강(師夷長技以自強)을 목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진행된 개혁운동이다. 양무파는 중체서용론(中體西用

양무운동은 서양의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국가 경제력을 빠르게 발전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 경제 부분의 변혁 운동이다. 운동은 서구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정치적 개혁은 추구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여 이후 정치적 개혁을 통해 구국을 완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러한 움직임은 청일전쟁 패전 후인 1898년 무술변법운동[3](戊戌變法運動)으로 구체화 되었다. 양계초, 강유위 등 유신파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은 이전의 양무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 측면에서 입헌군주제도로의 개혁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당시 청나라(清政府)는 유신파보다 보수파가 정치적 우위에 있었다. 보수파로 대표되는 정당은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지키기 위해 유신파가 중심이 된 변법운동을 전적으로 반대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유신파는 국민들의 지지도 거의 얻지 못하였고 무술변법운동은 점차 고립되어 갔으며, 결국 무술변법운동은 실패로 끝이 났다.

무술변법운동이 실패로 끝이 나자 양계초는 보수파의 보복을 피해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이 일본 망명 중 양계초는 사상적으로 큰 변화를 가지게 된다. 정치적 보복을 위해 떠난 일본 망명은 오히려 그의 인생에서 사상발전의 황금시기가 되었다. 양계초는 일본에 망명한 후 1898년《청의보(清議報)》, 1902년부터《신민총보(新民叢報)》를 발간하였다. 그는 이

論)을 내세우며 중국의 전통적 가치 체계와 서양 문명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였다. -蔡尚思, 方行 著, 『譚嗣同全集』北京 中華書局, 1998年

3) 1989년 강유위, 양계초 등 유신파를 중심으로 진행된 개량주의적 변법운동이며 일본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모범으로 하여 근대적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개혁운동의 주요내용은 정치체계 변혁이다. 그러나 보수파인 서태후 등으로 인해 무술변법운동은 100여 일만에 실패로 끝났다. 담사동, 양깊수(楊深秀), 양예(楊銳), 임욱(林旭), 유광제(劉光第), 강광인(康廣仁)은 당시 33세의 젊은 나이에 처형되었다. 이 6명의 희생자들은 일러 '무술육군자'라고 일컫는다. 처형되기 직전에 그들은 "도적들을 죽이고자 결심하였으나, 국면을 전환시킬 힘이 부족하여, 영광스러운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으니, 기쁘고 기쁘구나!(有心殺賊, 無力回天, 死得其所, 快哉快哉)"라고 하였다. -蔡尚思, 方行 著, 『譚嗣同全集』北京 中華書局, 1998年

잡지들을 통해 근대적 민족국가의 정치 언론사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룰『신민설』은 1902년 2월에서 1906년 1월에 걸쳐 발간한 반월간 잡지《신민총보》에 연재되었던 글을 묶은 것이다.

『신민설』[4]은 전체 20절로 구성되어 있다. 전 4절의 주요 내용은 당시 중국사회 현황을 해설하고, 근대국가와 근대국가의 국민상을 제시하고 있다. 뒤 16절은 국가론(論國家思想), 도덕론(論道德思想), 경쟁정신(論進取冒險精神), 권리론(論權利思想), 자유론(論自由), 자치정신(論自治), 의무론(論義務思想), 상무정신(論尚武), 정치지식(論民氣), 정치능력(論政治能力)등을 나누어 논의하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지식 교육과 도덕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양계초는 중국인들이 근대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갖춰야 할 자질을 민지(民智), 민덕(民德), 민력(民力)으로 정리했다. 양계초의『신민설』은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 사상으로, 그는 이 사상을 통해 근대적 민족국가를 세울 초석을 마련하고자 했다.

1937년부터 1979년까지 중국 학술계에서 양계초의『신민설』에 대한 논문, 저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것이 거의 전무하였다. 그의 신민사상에 관한 내용은 다른 학자의 저술, 전기에서 산발적으로 간단하게 평가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80년대부터 여러 방면의 연구가 전문적으로 진행 되면

4) 부록 표1 참조. 『신민설』은 제1절 서론(緖論), 제2절 오늘날 중국에서 신민의 급박함을 논함(論新民為當今中國第一急務), 제3절 신민의 의미를 해석함(釋新民之義), 제4절 우승열패의 이론으로 신민의 결과를 증명하고 모델로서 마땅함을 논함(就優勝劣敗之理以證新民之結果而論及取法之所宜), 제5절 공덕을 논함(論公德), 제6절 국가사상을 논함(論國家思想), 제7절 진취모험을 논함(論進取冒險), 제8절 권리를 논함(論權利思想), 제9절 자유를 논함(論自由), 제10절 자치를 논함(論自治), 제11절 진보를 논함——일명 중국정치에 민중들은 참여할 수 없는 이유(論進步——一名論中國群治不進之原因), 제12절 자존을 논함(論自尊), 제13절 합군을 논함(論合群), 제14절 경제측면 생산과 소비(論生利分利), 제15절 의력을 논함(論毅力), 제16절 의무(論義務思想), 제17절 상무정신(論尚武), 제18절 사덕(論私德), 제19절 민중의 의기(論民氣), 제20절 정치능력(論政治能力)으로 구성된다. -梁啟超『新民說』宋志明選注,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서 양계초에 관한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중국지식신망(中國知識新網)통계에 따르면 양계초의『신민설』에 대한 연구논문은 약 70편이 있다. 송인의《양계초의 정치 법률사상에 관한 연구》, 유방복의《양계초의 철학사상의 신설 연구》, 장호의《양계초하고 중국근대사상의 과도》등은 양계초의 사상에 대해 전문적으로 논설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의 사상을 뛰어나게 표현하고 있다. 2012년 12월 베이징 대학에서 양계초의『신민설』발표 110년을 기념하기 위해 '신민설로 다시 되돌아간다'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회가 열렸다. 신민설 내용 중 도덕적 영역이 중심 고리를 이루고, 정치관념 차원에서, 국민 개인 차원에서에서의 검토를 통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민 자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일련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신민설』의 핵심개념을 '신민'이라 보고, 신민사상의 근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신민사상은 중국 전통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양계초는 고요한 심신을 수양하는 중국 전통의 유가사상을 도덕성 원칙으로, 서구 근대 부르주아 윤리학과의 융합과 절충을 시도하였다.

둘째, 신민사상은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이론가 허버트 스펜서[5]의 사회유기체론과 사회진화론을 도입해서 수용하였다.

셋째, 신민사상은 부르주아 계몽사상가 장 자크 루소[6] 사상에 많은 영

---

5) 영국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Hebert Spencer 1820년~1903년)주의에서 우주적 진화론은 구조의 동질성에서 이질성으로의 이동이고, 비유기적 세계에서 발생하여 유기적 세계를 거쳐서 사회 초유기적 진화에서 정점에 이른다. 사회는 유기체와 같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사한 부분의 통일된 단계로부터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는 분화된 상태로 발전한다. 그의 다원주의는 유기체 부분 간 혹은 유기체와 그 환경간의 평형이 혼란되고, 새로운 상태의 평형이 발전되는 유기체와 사회의 변동에 관한 기능주의이론으로 개념화되었다. -『101명의 위대한 철학자』,매슨 피리저, 강준호 역, 서광사 출판사, 2011년3월20일

6) 프랑스 사상가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년~1778년)는 1762년 <에밀>과 <사회계약론>을 저술하였는데, <사회계약론>에서 루소는 사회 계약론과 국민주권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다. 그는 사회의 악성과 인간의 소외됨을 가감 없이 묘사하며 자연 생태에서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풍조를 통렬히 비판하고 자연과 인간의 본성으로

향을 받았다. 무술변법운동 실패 후 일본 망명시절 양계초는 서구 선진 계몽사상을 접하게 되었고, 근대적인 국가 발전 관념에 매우 깊은 깨우침을 받는다. 그의『신민설』에 나타나는 국가론은 루소의 사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넷째, 신민사상은 민족주의 영향을 받았다.

다음으로『신민설』에 소개된 중심내용과 영향력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신민설』의 주요내용은 부르주아 민족주의의 애국계몽사상과 서구의 선진화된 정치제도를 선전한다. 그는 이를 통해 중국의 낙후된 정치제도를 비판하고 국민들의 저열한 근성(劣根性)을 개조시키고자 하였다.

둘째,『신민설』에서는 '신민'개념으로 민지, 민덕, 민력 소개하고 그것을 배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민지, 민덕, 민력을 도덕적 영역에서 다룰 뿐만 아니라 신문 영역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서술한다. 이러한 '신민'개념은 근대화 과정에서 도덕적 영역의 중심 고리를 이룬다. 또한, 정치 차원에서, 정치 능력과 더불어 국민 자격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하였다.

본 논문은 양계초『신민설』의 형성배경과 형성과정, 그리고 그것이 당시 중국과 한국 양국의 언론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양계초의『신민설』에 나타나는 신민사상이란 무엇이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양계초의 신민사상이 중국 근대 신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셋째, 양계초의 신민사상은 당시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조선 구한

회귀할 것을 주장하였다.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국민주권 사상은 프랑스 대혁명 뿐만 아니라 세계적 계몽사상운동의 사상적 기반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101명의 위대한 철학자』,매슨 피리 저, 강준호 역, 서광사 출판사, 2011년3월20일

말 시대 신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넷째, 양계초의 신민사상은 오늘날 현대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상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전개된다.

양계초의『신민설』에서 중국 전통의 고요한 심신을 수양하는 유가전통사상에 뿌리를 두고 서구 애국계몽사상을 어떻게 수용 하였는가를 살펴보고,『신민설』주요내용인 신민사상 으로 소개된 민지, 민덕, 민력을 배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 영역에 대한 주장을 살펴보고 중국 근대 신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상세히 논술할 것이다.

제2절 연구방법 및 선행연구

지금까지 양계초의『신민설』과 관련된 한국어권의 연구를 살펴보자, 도상범(1993)은 양계초의『신민설』을 정치 차원에서 민권과 입헌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신민'의 주요 내용인 민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교육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학교교육보다 사회교육을 강조한 것은 변법보다는 우선 신민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이소은(2002)은 당시 동아시아 국가는 전통질서의 내적 모순과 서구적 근대질서의 외적 충격으로 인한 위기의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진화론을 수용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 논문은 양계초의『신민설』이 신채호의 <신국민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두 사상이 수용한 사회진화론 인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두 사상가를 비교한 결과 구한말 지성계는 양계초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사회진화론 역시 양계초를 거쳐 신채호에 수용되었다는 전파경로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들의 사상에 유사한

점이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사상은 전통성과 근대성의 갈등이 표출되는 시기,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게 되는 1900년대 초에 형성 되었다는 점에서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다.

이보람(2006)은 양계초의『신민설』에 나타나는 개인의 특성과 근대적 개인의 특성 비교를 통해『신민설』에 나타나는 개인이 보여주는 근대성과 전통성의 융합이 중국적 근대성의 특성이라고 보았다. 철학적 관점에서 양계초의『신민설』에 나타나는 근대적 개인 개념과 서구 근대적 개인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둘의 비교를 통해 서구의 근대적 개인 개념이 도덕의 형태를 개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중국적인 근대적 개인을 형성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김재홍・신진숙(2007)은 양계초의『신민설』에 나타난 유교적 '심학'의 근대적 전유물인 '마음'과, 만해의 불교 사상의 근대적 전유물인 '마음'을 비교 분석한다. 양계초는 국가의 힘을 정신력, 담력, 체력 세 가지로 논하고 있는데, 그 중 정신력은 양계초가 유교의 '심학'으로부터 그 논리적 근거를 가져온 것이다. 만해는 불교의 근대화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유신'이란 한 마디로 근대화를 의미한다. 그는 불교의 만인 평등사상이 서구적 개념의 자유사상과 동일한 위상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의 비교를 통해 동아시아 시각에서 본 마음의 의미에 대해 논설하였다.

이신영(2009)은 신민사상의 형성과정을 중국문화와 역사적 배경 속에서 분석한다. 신민사상의 주요내용에 대해 논설하고, 핵심적으로 국가론을 서술한다. 신민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철학적 차원에서는 유심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을 가진다. 중국의 특징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신민에 대해 새로운 내용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양계초『신민설』의 형성배

경, 형성과정, 주요내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론 제1절 에서는『신민설』형성과정과 배경을 분석할 것이다. 주희(朱熹)는『대학(大學)』에서 '신(新)민'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하였고, 백성을 새롭게 한다. '신민'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정치적・개인적・경제적 측면을 통해 논증하였다. 양계초는 이러한 중국전통사상을 토대로 '신민'개념을 형성시켰고, 유신파 지식인과 함께 전개한 무술변법운동은 그의 신민사상의 초석이 된다. 무술변법운동의 실패 후 일본 망명 기간 동안 접한 수많은 서양 계몽사상과 선진적 서양 사상을 통해 그의 신민사상은 더욱 체계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는 1902년부터 일본 요코하마에서 반월간 잡지《신민총보》발간을 시작하고 신민사상을 발표하였다.

본론 제2절 에서는『신민설』의 주요내용과 성격에 대해 분석 할 것이다. 그의『신민설』에 나타나는 권리의무론, 국가론, 경쟁론, 자유론, 도덕론, 상무정신 등이 주요내용이 포함된다.

이어서 제3절 에서는『신민설』이 한・중 양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당시 양국 모두 제국주의 침략을 받고 있었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신문의 발전 과정에 신민사상의 주요내용인 자유론, 경쟁론, 도덕론이 언론출판의 자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신문종사자에의 직업윤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1898년 무술변법운동이 일어나기 전 청 정부는 신문 사업을 봉쇄하고 판매를 금지하였다. 그런 까닭에 중국의 근대 신문, 잡지 등의 간행물은 발간되는 시기가 무척 늦어지게 되었다. 유신파 지식인은 그들의 사상을 선전하기 위해 사회 언론을 연결하고 신문을 발행하고《중외기문(中外紀聞)》을 출판했다. 이는 중국 근대 신문 사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양계초는《신민총보》에 연재되었던 자신의 정치주장을 묶어『신민설』을 출판하여 사람들에게 '신민'개념을 소개하며 노예근성과 봉건 미신을 타파

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봉건전통문화에서 벗어나 독립된 주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자유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춰야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양계초의『신민설』의 주요내용은 신문·잡지 등의 간행물이 발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고, 그 발전 과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언론출판자유, 신문자유, 신문종사자가 갖춰야 하는 직업윤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새로운 인식을 제시하였고, 이것은 이후의 신문사업에 대한 원칙이 되었다. 그리고『신민설』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독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표현하는 신문체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신문문체의 형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양계초가『신민설』에서 발표한 국가론은 구한말 애국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구한말 애국계몽사상가들은 이러한 국가론을 바탕으로 애국이론을 펼쳤다. 그들은 신문·잡지 간행물을 통해 애국관념을 국민에게 선전하고 대한제국의 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대한매일신보》,《황성신문》,《한성순보》,《대한자강회월보》,《태극학보》에서는 양계초의『신민설』을 소개하고 그의 신민사상을 선전하였다. 당시의 언론인인 안창호, 신채호, 양기탁은 양계초의『신민설』을 읽고 그의 신민사상에 영향을 받아 서울에서 신민회를 창립하게 된다.

본론에서는 이 내용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본론의 논의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과 이 연구의 한계점을 서술하는 것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 할 것이다.

제2장 본 론

제1절 「신민설」 형성과정과 배경분석

1. 신민 개념의 유래

'신민'이라는 단어는『서경』<강고(康誥)>편에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주공이 조카인 성왕을 대신해서 위(衛)라는 나라의 군주인 소자(康叔)에게 제후의 한사람으로서 왕을 돕는데 지켜야 할 교훈을 이른 것이 <강고>편이다. '새로운 백성으로 만든다'는 정치적 맥락에서 난 뜻으로 쓰였다.

『대학』에서는 "대학의 도(道)는 덕(德)을 밝히는데 있으며, 신(新)民에 있으며, 지선(至善)에 머무는데 있다."[7]라고 하고 있다.

『대학』을 중시했던 주희는 삼강령(三綱領)의 덕(德)과 더불어 '신'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린다.

"신이라는 것은 그것을 고치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스스로 그 도덕(明德)을 밝히고 또한 마땅히 이것으로 미루어 사람에 미쳐 옛날 오염 된 것을 없앤다는 말이다."[8]

『서경』과 유교의 대표적 저작『대학』의 본문의 해석을 종합해볼 때 첫째, 『서경』의 신민은 천명정치사상[9]의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민중 자신의 도덕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주자(朱

7)『大學』「大學之道在明明德在親民在止於至善」

8)『書經』程朱理學代表的概念思想引入

9) 왕은 천명을 자연스럽게 받들고 그 천명을 받은 왕은 그 '민'이 신분질서에 합당한 행위자로서 군·민이라는 유기적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書經』

子)의 신민에서 '신'은 옛날 것을 개혁한다는 의미로서 옛날의 오염된 것을 벗기는 작업 즉 도덕의 상태를 회복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신'과 '민'을 합쳐 볼 때 '민'은 스스로의 자각을 형성시키고 고상한 덕성·도덕을 배양한 상태의 '민'이나, 회복하려는 '민'으로서『서경』에 보이는 정치사상적 측면과는 달리 내면세계를 문제로 삼는다. 양계초는《신민총보》의 창간사에서 '신민'개념이『대학』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양계초의 신민 개념은『대학』에 나온 개념을 빌려온 것으로 국가를 새롭게 하려면 우선 백성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전통적인 유교사상은 양계초 신민사상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일본 망명 기간 동안 접한 광범위한 서구 이론사상들도 신민사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즉 양계초『신민설』에 나타나는 신민사상은 중국 전통 유교이론인 주희의 '신'민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서구이론사상의 영향을 받아 발전되었다. 그렇기에 필연적으로 앞서 서술했던 내용인『대학』에 나타나는 '신민'개념을 뛰어넘는 내용으로 완성된다.

2. 신민사상 형성의 역사적·문화적 배경

19세기 말 아편전쟁과 청일전쟁을 겪은 뒤 중국의 지식인들은 국가와 민족이 존망의 위기에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1861년~1894년 증국번, 이홍장 등의 관료들과 유신파 계몽주의 지식인을 중심으로 양무파가 함께 '자강'을 목적으로 양무운동을 전개 하게 된다. 양무운동은 서양의 근대적 과학 기술을 보급하고, 그로인한 경제 발전을 통해 자강을 이루고자 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혁운동이다. 하지만 이러한 양무운동은 결국 실패로 끝이 났다. 당시 진보적 개량주의 사상을 가진 유신파는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대항해 민족부흥의 임무를 자처하였으며,

이것은 민중의 공동의 소원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신민사상 이론을 통해 '구국'과 '계몽'으로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1898년 '구국'을 구호로 내세운 무술변법운동을 진행하였지만 이 또한 실패로 끝이 났다. 두 운동의 실패를 통해 국민성(國民性)을 개조하고 국민의 정신적 측면을 배양 하는 것이 개혁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양계초는 '구국'과 '계몽'에 대해 깊이 탐구하며 신민사상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무술변법운동 실패 후, 양계초는 일본으로 망명을 가게 되었고 망명기간동안 그는 서양의 사상을 접하면서 신민사상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그는 일본에서 1898년《청의보》에 <변법통역(變法通議)>을 연재하고, 1902년부터 반월간 잡지《신민총보》를 발간한다. 이를 통해 <신민설>을 연재하였고 신민사상은 구체적으로 형성되었다.

양계초는 민족독립을 실현하고 나라의 부강한 발전을 도모하려면 중국 전통 도덕을 갖출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덕 체계의 개혁을 추진해야 최종적으로 민족의 독립과 나라의 부강을 가져올 수 있는 문화적 기초를 다질 수 있다고 보았다.[10]

양계초는 도덕 체계를 다시 구조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그는 서구 선진 부르주아 도덕관념과 중국 전통 문화체계 도덕관념을 서로 합쳐서 신민사상을 체계적으로 형성시키는데 그것의 목적은 자산계급의 도덕적 자각이었고, 동시에 행위 규범에 맞는 행동을 통해 '신민'의 주체들이 마음속 깊은 곳부터 이러한 행위 규범에 맞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것은 한편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민족의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전통 지식인들이 추구하는 이성적으로 완

10) 苟不及今急急斟酌古今中外, 發明一種新道德而提倡之, 吾恐今後智育愈盛, 而德育愈衰, 泰西物質文明盡輸入中國, 而四萬萬人且相率而為禽獸也. -梁啟超『新民說』[M].黃珅評注.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8:66

벽한 인격을 실현하는 것이다.

3. 신민사상 형성의 이론적 배경

양계초 신민설의 핵심개념인 '신민', 즉 신민사상 형성의 이론적 배경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중국 전통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중국의 고전 전통 유교 문화는 인간이 진실하고 선량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입을 모아 칭송하고 노래한다. 유교문화의 대표적인 저작인『대학』에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신민'이고 이 개념에는 도덕 수양과 인간 혁신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11)]

양계초는 일본 망명 이후 서구 근대 가치관, 즉 부르주아 윤리학을 수용하지만 중국 전통의 유가의 도덕성을 원칙으로 삼고 둘의 융합과 절충을 시도하였다. 즉 양계초는 유교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서구사상의 수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둘째, 양계초의 신민사상은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유기체론과 국가유기체론을 중요한 이론적 기초로 가진다.

이 이론은 사회란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생물)로서 스스로 움직이고 생각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즉, 사회란 실제로 존재하며 개인은 사회라는 커다란 울타리에서 보호받고 사회라는 울타리가 만들어낸 법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사회를 위해 개개인의 요구와 목적이 무시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이소은, 2002).

이러한 단점이 있지만 이러한 논리를 바탕에 둔 국가들은 때로는 국민들이 일치단결(一致團結)하여 무서운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위력을 가지기도 한다.

---

11) 中國啓蒙思想文庫『新民說』梁啟超 著, 宋志明 選注, 遼寧人民出版社, 1994年 瀋陽 p.15-18

생물유기체의 질량은 단원세포의 질량에 따라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인간 집단의 발전은 개체의 소질에 따라 결정된다.[12]양계초는 인간도 생물유기체처럼 사회유기체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사회를 창건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우선 만들고 국민의 기본 소질을 전면적으로 진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애국사상을 배양하고, 진취적인 생각, 경쟁정신, 자유론을 세우고 권리와 의무가 서로를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셋째, 일본 망명 기간 동안 접한 장 자크 루소의 사상은 양계초의 신민이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국민주권 사상은 프랑스 대혁명이 아니라 세계적 계몽사상운동의 사상적 기반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루소는 이 저서에서 자연 상태하의 인간이 사회계약을 통해 사회와 국가를 형성하고 시민적 신분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인간이 사회적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는 이 사회적 질서를 신성한 권리로 보고 이것은 다른 모든 것의 기초를 이룬다고 말한다.[13]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설에 따르면 자유롭고 자율적인 개인들이 모여서 일반의지로써 사회계약을 맺어 형성한 정치공동체가 바로 국가라고 한다. 1762년 루소가 주장한 사회계약론 기초 이론은 인간평등관 교육을 국가 책임론으로 발전시켰다. 즉,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하라는 것인데 이 주장은 당시 사회에서 획기적인 주장이었다. 이 이론은 후에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준다. 특히 자유, 평등, 박애, 절대주의 타도 등의 이념에 큰

12) "國也者, 積民而成國之有民. 猶身之有四肢、五臟、筋脈、血輪也. 未有四肢已斷, 五臟已察, 筋脈已傷, 血輪已涸,而身猶能存著; 則亦未有其民愚陋怯懦, 渙散渾濁, 而國猶能立者. 故欲其身能長生久視, 則攝生之術不可不明, 欲其國之安富尊榮, 則新民之道不可不講也." -梁啓超『飮冰室文集』北京 中華書局, 1989年版

1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30217&cid=483&categoryId=483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문화비평용어사전, 2006.1.30, 국회자료원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후에 교육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는 주장으로까지 퍼진다.

인간이 사회를 이루며 그 질서 속에서 산다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신성한 권리이며, 그것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계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회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은 혁명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14] 하지만 이런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 계약이 하나의 의무처럼 되어야 할 어떤 본질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루소의 계약을 통해 성립되는 사회나 국가는 갈등과 경쟁으로 성격 지워지는 개인의 욕구나 욕망을 간과함으로써 추상화된 이론적 구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단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차원으로 전락함으로써 개인의 개별적인 자유는 배제될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이 제기되지만, 양계초는 루소의 사상에 따라 사람들이 스스로 계약을 체결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국가를 이룬다는 국민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국가 형태가 기원한다고 보았다. 사람들은 개인의 생명,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어떤 사회계약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 주권, 즉 최고 권리는 전체 국민이 가진다. 이러한 국민의 중요성을 논증하는 과정을 통해 양계초는 국민이 국가의 주체라는 사상을 확실히 확립할 수 있었다. 이런 이론적 근거를 통해서 완벽한 '신민'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넷째, 민족주의는 그의『신민설』형성과정을 추진하였다. 민족주의는 그 속에 이념과 운동을 동시에 포용하고 있다. 민족이념으로서는 단일적인 민족구성원이 독립적인 민족국가를 형성하여 민족정치・민족경제・민족

1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5324&cid=483&categoryId=483 [네이버 지식백과], 민족주의, (民族主義),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를 전개하려는 욕구를 그 본질적인 성격으로 삼고 있다.[15)]

민족주의가 성립하는 데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세계는 하나라고 하는 이상과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세워진 세계제국이 무너지고 많은 독립국가가 나타나, 종래의 보편적인 종교・문화를 대신하는 새로운 민족적인 종교・문화를 창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렇게 이룩된 독립국가를 국민들이 '우리들의 국가'로서 받아들여 사랑하고 이에 긍지를 느끼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생각은 양계초가 국가론을 정의 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제2절 「신민설」내용과 성격에 대한 분석

1. 권리의무론의 내용과 성격

서구 정치학에서 권리와 의무는 '천부인권(天賦人權)'개념을 기본으로 삼는다. 양계초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권리사상을 갖는 것은 천부인권의 양지양능(良知良能)이라고 했다."[16)] 즉,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권리라는 것이다.

양계초는 계몽적 관점에서 국민성을 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권리와 의무 두 관계가 서로 상부상조적인 관계라고 말한다.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민, 즉 신민은 중요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양계초의 관점에서 국민 개인이 강자가 되어 성취한 권리는 그대로 국가의 권리가 된다.

---

1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5324&cid=483&categoryId=483 [네이버 지식백과], 민족주의, (民族主義),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6) 中國啓蒙思想文庫『新民說』梁啟超 著, 宋志明 選注, 遼寧人民出版社,1994年 瀋陽 p.45

의무와 권리는 서로 대립적으로 존재한다. 사람이 태어나 응당 얻는 권리가 있고 태어나서 응당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이 둘의 양은 적절하게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독일 19세기 학자 예링(Rudolf von Jhering, 1818년-1892년일)은 저서『권리경쟁론(Der Kampf ums Recht)』에서 “권리의 목적은 평화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전투이다. 서로 침입하게 되면 반드시 항상 경계한다. 침입은 그치지 않으므로 경계 역시 다할 기약이 없다. 말하자면 권리의 생애는 경쟁일 뿐이다.“ 또한, “권리란 부단한 노동이다. 노동이 일단 해이해지면 권리는 즉시 사라진다.“라고 했다. 이처럼 권리란 것은 얻기도 어렵고 보존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양계초는 사람들이 사회집단에서 살다보면 여러 가지 권리를 향유하는데 이때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무와 권리는 서로 의지해 성립한다. 사람이 태어나 응당 얻는 권리가 있고 태어나서 응당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이 둘의 양이 적절하게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이혜경,2006)“[17]라고 했다. 하지만, 권리를 진정하게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권리를 세워야 하게 된다. 강한 국가에서 국민들이 권리가 없으면 국가를 건설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중국인은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양계초는 권리야말로 국민들이 가져야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무를 배양해야 한다고 보았다. 양계초는『신민설』에서 의무론은 근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초석이라 보았다.

2. 국가론의 내용과 성격

17) 中國啓蒙思想文庫『新民說』梁啟超 著, 宋志明 選注, 遼寧人民出版社,1994年 瀋陽 p.46

양계초의『신민설』제6절에서는 “국가론“중 애국사상에 대해 더 깊은 논의를 진행한다. 그는 “국가론“에서 국가에 대한 세 가지 정의를 내린다.[18)]

첫째, 개인에 대해 국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당시 중국인들에게 국가 관념에 대한 의식은 없었다. 대신 천하관념이 발달해 있었다. 천하관념이 발달한 원인은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에 만연했던 전쟁의 참담함을 목도한 중국의 철학자들은 통일의 추구를 이론의 중심으로 삼는다. 하지만, 천하관념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국가적 주체가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개인 이익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국가의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런 현황의 원인은 “자기 한 몸 깨끗이 하면서 시골에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 국가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들”[19)] 때문이다. 만연해 있는 이기주의를 중국인들이 국가에 대해 약한 의식을 가지게 하는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

둘째, 조정에 대해 국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국가론에서는 국가와 정부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양계초의 관점에서는 국가는 국민에게 이익을 주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가 관념이 있는 사람은 항상 조정을 사랑하지만, 조정을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국가 관념을 가진 것은 아니다. 조정이 정식으로 성립된 것이라면 조정이 국가의 대표가 되며, 이때 조정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정이 정식으로 성립한 것이 아니라면, 조정은 국가의 도적이다. 이때는 조정을 바로 잡는 것이 국가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셋째, 다른 민족에 대하여 국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국가는 개인과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운명공동체로서 단순한 선택의 대상이 아니

---

18) 中國啓蒙思想文庫『新民說』梁啟超 著, 宋志明 選注, 遼寧人民出版社 1994年 瀋陽 p.148

19) 中國啓蒙思想文庫『新民說』梁啟超 著, 宋志明 選注, 遼寧人民出版社 1994年 瀋陽 p.26 獨善其身, 鄉黨自好者, 畏國事之為己累而逃之也.

라는 것을 인지해야 국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 국가론의 내용이다(이혜경,2006). 그러나 국민과 국가는 그렇게 이익으로만 연결된 단순한 관계가 아니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한곳에서 무리를 이루고 살면서 같은 언어와 같은 풍속, 나아가 같은 사상, 같은 법제를 공유하면서 국가를 건설해 왔다. 다른 국가 역시 그러한 역사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모여 만들었을 것이다. 지역, 언어, 문화적인 공동체로서의 국가는 개인에게는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운명으로 다가온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국가가 가진 의미를 강조한다. 국가론을 통해 전체 국민들이 애국사상을 가지게 하고, 그러한 애국사상을 통해 신민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의 관점에서 계몽을 완성하는 것이며, 역사적 사명인 것이다.

3. 경쟁론의 내용과 성격

양계초는 신민설의 주요내용을 권리의무, 국가론, 도덕론, 상무정신, 자유론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지만 이런 주제들의 공통적인 기본원칙은 경쟁정신이다.

'신'민을 이루기 위해 경쟁정신이 아주 중요하다. 중국 근대부터 사회가 낙후하고 열강이 침략하는 이유는 경쟁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양계초의 관점에서 경쟁정신은 바로 맹자가 말하는 '호연지기(浩然之氣)'와 같은 의미이다.

경쟁정신을 배양하려면 아래 네 가지를 길러야 한다.

첫째, 희망이다. 그의 관점에서는 경쟁정신과 희망은 서로를 키워주는 원동력이 되고, 우리에게 경쟁정신을 통한 실천을 이끌어 낸다.

둘째, 열정이다. 양계초의 관점에는 인스피레이션(inspiration) 그것은

열정이 최고조에 달한 지점으로, 이 열정은 사랑으로 인해서만 발휘된다. 열정을 잘 이용하면 사람들이 경쟁사상을 배양하고 갖출 수가 있다.

셋째, 지혜이다. 경쟁정신은 감성적인 열성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무지한 사물에 대해 두려움을 가진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힘, 즉 지혜가 필요하다. 양계초가 말하기를 "기를 기르려면 먼저 지혜를 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의 노예가 되고 선철의 노예가 되고, 습속의 노예가 되고, 권세를 가진 지배자의 노예가 되고, 심지어 자기 마음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 마음은 또한 육체의 노예가 될 것이다."[20]

넷째, 담력이다. 육체의 기와 정신의 힘이 상호 작용하여 담력을 형성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담력을 기르기 위해 정신과 육체 양자를 모두 길러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은 '기'가 약하게 된다. 즉 육체와 기백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육체적인 건강을 키우는 것은 기백을 키우는 방법이 된다. 한편 담력이 뛰어난 사람자신이 육체적인 부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정신력으로 담력과 기력을 기를 수 있다.

4. 자유론의 주요내용

양계초의『신민설』제9절에서는 구미 근대국가의 건설에 초석 역할을 한 이념인 자유에 대해 "천하의 공리이자 인생의 필수품"이라고 그 가치를 인정한다.[21]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그것은 타

20) 中國啓蒙思想文庫 『新民說』 梁啟超 著, 宋志明 選注, 遼寧人民出版社, 1994年 瀋陽 p.46
이혜경(2006).「양계초 신민설」철학사상연구소,『철학사상』별책 제7권 제5호 p.74-80

21) 中國啓蒙思想文庫『新民說』梁啟超 著, 宋志明 選注, 遼寧人民出版社, 1994年 瀋陽 p.55-60
이혜경(2006).「양계초 신민설」철학사상연구소,『철학사상』별책 제7권 제5호 p.89-92

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경계로 삼는다. 자유는 정치적 자유, 종교적 자유, 경제적 자유, 민족적 자유, 등으로 형태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치적 자유란 국민이 정부에 대해 자유를 갖는 것이다. 종교적 자유는 신도가 교회에 대해 자유를 갖는 것이다. 민족적 자유란 본국이 외국에 대해 자유를 갖는 것이다. 경제적 자유란 자본가와 노동자가 서로의 자유를 갖는 것이다(이혜경,2006).

양계초는 국가의 자유를 위해 국민들에게 자유정신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이성적 복종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성은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고 국가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성을 의미한다. 자유를 이루려면 네 가지 법칙에 따라야 한다.

첫째, 개인의 자유는 단체의 자유에 속한다. 즉, 개인의 자유는 국가의 질서에 속한다. 단체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는 서로 상반관계에 있다. 양계초는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우선 개인의 자유를 버리고 단체의 자유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단체의 자유를 획득한 이후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다.

둘째, 법이란 국가 전체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을 통해 국가의 힘을 길러 국가의 자유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런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법을 국민 자신이 재정해야 하며, 그렇게 만든 법률에 복종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을 꾀하고 발전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실현할 수가 있다.

셋째, 단체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법은 선천적인 양지와 후천적인 노력의 결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양계초의 말에 의하면, 법률은 인위적이고 후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면서도, 외부에서 부여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선천적인 양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22] 즉, 법

22) 백지운(2004).「자유서를 구성하는 텍스트들-량치차오(梁啟超)의 '자유'의 개념에 대한 연구」 중국현대문학 제13호.

률은 개인적인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 해 주는 장치인 것이다.

양계초는 이러한 자유사상을 국가 전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때 근대 민주국가의 형태가 탄생된다고 보았다.

5. 도덕론의 주요내용

양계초의『신민설』제5절 “공덕“편과 제18절 “사덕“편에서 그의 도덕론을 전개했다. 그는 도덕론에서 도적을 공덕과 사덕으로 나누고, 공덕과 사덕을 모두 갖추었을 때 도덕적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공덕은 개인 대 국가, 개인 대 단체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사덕은 개인 대 개인의 관계 것이다. 공덕과 사덕은 상호 대립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며, 상호 보완적 관계라 할 수 있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단체는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관계가 생겨난다.[23] 도덕의 본체는 하나이다. 그러나 밖으로 드러나면 ’공’과’ 사’의 이름이 생긴다. 사람마다 독선기신 자신의 도덕성을 고양하고 일하는 것을 사덕이라고 한다. 개개인이 그 사회를 좋게 하는 것을 ’공덕’이라고 한다. 이 둘은 모두사람이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다. 사덕이 없으면 사람이 바로 설 수가 없다. 비열하고 허위적이고 잔인하고 어리석고 겁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공덕이 없으면 단체를 이룰 수 없다. 자기만을 단속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겸손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이혜경,2006).

공덕이란 사회나 국가가 사회나 국가일 수 있는 이유로 사회나 국가는 이 공덕에 기초하여 정립된다.

---

23) 中國啓蒙思想文庫 『新民說』 梁啟超 著, 宋志明 選注, 遼寧人民出版社, 1994年 瀋陽 p.70

양계초는 중국에 공덕 도덕론이 발달하지 못했다고 보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도덕의 진화 과정에 대한 무지 몽매가 때문이다. 둘째, 이기주의가 때문이다.

『신민설』제4절 “우승열패의 원리로 논증한 신민의 결과, 신민을 채택해야 하는 당위“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청되는 공덕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은 실제로는 강한 민족을 강할 수 있게 하는 이유이고, 우수한 사람이 되어 우승열패의 경쟁세계에서 강한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이다. 즉, 문명시대에 강한 사람이 갖춰야 할 진화과정인 것이다. 양계초의 관점에서 보면 변화한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새로운 도덕 형태의 이름이 공덕이며, 이것은 우수한 민족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적 도덕이나 능력을 말한다. 공덕을 갖지 못하고 사덕만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양계초는 공덕을 도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내면의 자발성이라기보다는 이처럼 의무로서 요구되는 것이다.

사회 발전 과정에서 현재에 맞는 공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의 진보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듯이, 도덕의 진보 특히, 국민 공덕의 진보 역시 인간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국가와 민족 발전을 위해 도덕에 대한 점검은 불가피하다. 양계초는 근대국가 건설의 관건은 신민의 창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신민을 세우는 것은 공덕의 존재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계초는『신민설』에서 사덕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변화시킨다. 1902년부터《신민총보》에 신민설을 연재하는 동안 그의 정치적 입장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무술변법운동 실패 후 유신파는 일본으로 망명을 시작하고 해외를 돌며 반청(反清)운동을 했던 손문(孫文)을 지도자로 맞아 동맹회(同盟會)라는 혁명단체를 조직한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입헌군주제'를 자신의 정치적 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아니었다. 신민의 공덕은 이념으로서는 어디까지나 공화국의 국민의 자질을 요구한 것이었다. 혁명파로 기울고 있던 양계초를 저지하려는 강유위의 의도에 따라 양계초는 1903년 강유위의 주장을 실현하기위해 정치활동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미국의 보황회를 순회한다.

양계초는 미국순회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와『신민설』제18절 "사덕" 편을 연재한다. 이 시점부터 그의 이전까지의『신민설』이 공덕을 주요한 주제로 했던 것과는 달리, 사덕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하고 오로지 공덕의 중요성만을 강조한 이전과는 명백한 대조를 보여준다. 즉, 양계초가 공화국 건설에서, 공화국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로서 개명된 군주에 의한 전제를 주장하는 쪽으로 입장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다. 처음에는 사덕은 공덕과는 다른 체계의 것으로서, 사덕 상 지선의 것이라 해도 공덕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악일 수 있다. 그러나 사덕을 강조하게 되면서 양계초는 그전의 입장을 바꿔 사덕을 공덕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양계초는 사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공덕은 양심이라는 사덕의 뿌리에서 자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덕은 공덕에게 양심이라는 순수하고 선천적인 마음에서 자라난 것이라는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 등장한다.[24)]

그는 사덕이 타락하게 된 원인을 다섯 가지로 들었다.

첫째, 전제(專制)정치 국가형태가 그 원인이다.

둘째, 당시 중국은 청나라 전제국가로 청나라 패권(霸權)이 그 원인이다. 과거 중국의 정치 체계 때문에 사덕은 일단 타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

24) 中國啓蒙思想文庫『新民說』梁啟超 著, 宋志明 選注, 遼寧人民出版社, 1994年 瀋陽 p.78
이혜경(2006). 「양계초 신민설」철학사상연구소, 2006년, 『철학사상』별책 제7권 제5호. p.38,43,45,116-123

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청나라는 주권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의 서적 정리 사업을 벌여 선비들이 평생 그 속에서 자신의 정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개인의 도덕적 발전이나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모색의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당시 중국은 서구 열강의 침략 전쟁에서 패하고 있었는데 패전은 사덕이 타락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넷째, 경제적 궁핍이 민덕과 사덕의 추락과 직결되다. 당시 사덕의 타락은 유래 없이 심각한 경제적 궁핍이 원인이다.

다섯째, 당시 청나라는 왕조 주권을 지키기 위해 문화, 예술 등의 영역에서 억제한 정책을 실행하였고 그로 인해 뛰어난 학술이 생겨나지 못했다. 이것이 사덕이 타락하는데 큰 영향력을 끼쳤다.

공덕과 사덕의 관계를 분명히 구별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둘이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은 아니다. 양계초는 공덕의 장기성, 복잡성, 규칙성을 소홀히 생각하고 공덕과 사덕의 관계에 대해 간단하고 표면적인 정도로 이해하는 주장을 비판한다.

6.상무정신의 주요내용

양계초는『신민설』제17절에서 상무정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는 당시 중국에서 상무정신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논의한다.

첫째, 중국의 문화는 중국인들이 수 천 년 동안 자랑하던 찬란한 문화이기 때문에 주위 이민족들을 야만인들이라고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 둘째, 중국 역사 배경에서 중국을 둘러싼 이민족은 무력으로 중원을 차지한 적이 있지만 그들의 무력은 결국 중국의 문화에 압도되었다.[25]셋째, 민족

25) 中國啓蒙思想文庫『新民說』梁啟超 著, 宋志明 選注, 遼寧人民出版社, 1994年 瀋陽 p.76,80,89
이혜경(2006).「양계초신민설」철학사상연구소,『철학사상』별책 제7권제5호 p.47,51,113-136

의 문약함을 고치기 위해, 중국민족이 문약하게 된 원인을 추적해야 한다. 양계초는『신민설』에서 중국민족이 문약하게 된 원인을 중국이 국가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점, 유교 사상이 문약을 조정했다는 점, 패도정치가 오래 동안 이어졌다는 점, 중국인들이 고유한 무력을 경시했다는 점 등의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당시 청나라에서는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력을 키워야 한다고 보고, 무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양무운동이라는 개혁운동을 통한 정부 차원에서의 국가 경제력, 군사력, 공업력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다. 양계초는『신민설』에서 상무정신을 키우기 위해 세 가지를 강조하였다.

첫째, 정신력이다. 정신력이란 육체적인 힘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다. 그것은 육체적인 힘을 만회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능가하는 위력을 발휘하게 할 수도 있다고 양계초는 강조한다.

둘째, 담력이다. 사람들 간의 담력은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이다. 담력과 비교하여 중요한 것의 또 하나가 의지력이다.『논어』에서는 의지력이 필요한 이유를 “임무는 무겁고 길은 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자연과 경쟁하는 존재이다. 자연의 운행이 끝이 없는 것처럼 자연과 싸워야 하는 인간의 운명도 끝이 없다. 이것이 인간에게 의지력이 요구되는 이유이고 그것은 근대국가의 국민이 되기 위한 자격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셋째, 체력이다. 근대국가란 온 국민이 참여하는 총력전이며 결국은 온 국민의 군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특히, 체육교육은 그것을 위해 필요하다. 체력은 국가 군사력의 기본이며 국민의 체력은 그대로 국력이다. 예를 들어, 유럽 제국주의 국가는 초등학교 때부터 체육 교육이 중요한 교육의 기본이다. 건강하고 강한 육체가 있어야 강한 국민 사상을 가질 수 있다(이혜경,2006).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양계초의『신민설』에서 소개해 된 주요 내

용은 권리의무론, 국가론, 경쟁론, 자유론, 도덕론, 상무정신 여섯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사상이 당시 신문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제3절 「신민설」이 한·중 양국에 미친 영향 분석

1. 중국 사회 언론에 미친 영향

19세기 말기 강유위, 양계초를 비롯한 유신파 중국 계몽주의사상 지식인은 그들의 사상을 대중화하기 위해 신문을 발행하였다. 특히, 양계초는 중국 근대의 성공한 정치가, 사상가, 지식인 보다는 신문종사자로 유명하였다[26].

---

26) 1895년 8월 17일 베이징에서 양일간 뉴스는 《만국공보(萬國公報)》를 창간한다. 이 후에 제45기를 출판하고 《중외기문》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유신파들이 신문·잡지 간행물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처음 출판하는 신문이다.

1896년 8월9일부터 1898년 8월8일까지 《시무보(時務報)》 상해에서 총 64기를 간행했다. "변법자강"사상을 알릴 목적으로 양계초의 정치논설이 두 편이 실렸다. 하나는, 《論報館有益于國事》로 주요내용은 신문·잡지의 주요 기능과 역할에 대해 논설하는데 "去塞求通", "有助耳目喉舌之用而起天下之疾廢著"의 주장을 제시한다. 또 하나는, 《변법통역(變法通議)으로 최초로 변법사상에 관해 선전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리고 양계초는 《시무보》를 통해 "시무문체"를 개척한다. 그의 관점은 당시 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1898년 12월 23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순보 《청의보》를 창간했다. 자산계급 개량주의 학자가 해외에서 처음으로 신문을 발간하는 것으로, 일본 화교의 신문사업의 원조이다. 그의 장편논문 《本報第一百冊祝辭并論報館之責任及本館之經歷》을 실었다. 주요내용은 신문·잡지 간행물을 발간하는 원칙에 대해 제시한다. 즉, "종지내용은 정확하고 뚜렷하다(宗旨定而高)", "중심사상은 새롭고 정당하다(思想新而正)", "수집한 자료는 넉넉하고 정확하다(材料富而當)", "보도 사건은 확실하고 빠르다(報事確而速)"라는 네 가지 원칙을 밝혔다. 이를 통해 후세에게 계속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1901년 12월 21일 화재 때문에 발행이 정지됐다. 3년 간 총 100기를 출판했다.

1902년 2월8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반월간 《신민총보》를 창간했다. 1907년 11월 20일까지 정간하였다. 5년 9개월 달 동안 총 96기를 출판하였다.

1902년 11월 1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월간 잡지 <신소설(新小說)>, 《신민총보》를 같은 시간

중국 언론학자 과공진은 단적으로 “我國報館的崛起，一切思想的發達，皆由先生啟其端“이라 하며 근대 중국의 신문생성과 사상적 발전이 모두 양계초로부터 비롯된다고 평가한 바 있다. 청일전쟁 패배 이후 민국성립 이전시기의 중국 언론은 개혁을 이끌고 자유롭고 편향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그 역할을 하여 민국을 성립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는 중국 언론발전의 황금기로 평가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양계초이다.

1898년 무술변법운동, 즉 백일유신운동이 일어나기 전 청정부의 정책은 신문 사업을 봉쇄하고 판매를 금지한다. 그래서 중국 근대 신문, 뉴스, 잡지 등은 발간 시기가 무척 늦어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강유위와 양계초는 함께《중외기문》을 출판했고 이것은 그들이 처음 발간한 신문이다. 후세들은 유신파가 진행한 신문 사업에 대해 “신문 발전과 신문에 대한 사고방식은 양계초에 의해 생겨났다“[27] 고 말한다.

내에 발행하였다. 이것은 중국 근대 최초 소설에 대한 이론적인 논설이다. 1903년부터 중국 상해에서 광지서국(廣智書局)으로 출판하였다. 1906년 1월까지 정간하고 총 24호를 구성하게 된다.

1907년 10월 7일 일본 도쿄에서 월간 <정치론(政論)>을 창간했다. 그 이후 상해에서 "정치신문사"기관에서 발행하고 기관간호로 변해졌다. 1907년 10월 17일 정치신문사는 정식적으로 일본 도쿄에서 창립했다. 1908년 2월 상해로 되돌아가지만 8월에 청정부로 인해 정간 당하였다.

1910년 2월 20일부터 1911년 7월 16일까지 상해에서 순보《국풍보(國風報)》총 52기를 출판했다. 이것은《신민총보》이후 군주입헌파의 주요 언론일선이다.

1912년 12월 1일 천진에서 반월간 잡지 <평범한 말(庸言)>을 창간하고 1914년 6월 5일까지 정간하게 된다. 총 30기가 있었다.

1919년 9월 베이징에서 반월간 정치언론 간행물《해방과 개조(解放與改造)》를 창간했다. 1920년 유럽에서 돌아왔던 양계초는 이 간행물을 개편하였다. 1920년 9월 15일부터《개조(改造)》로 명칭을 바꾼다. 1922년 9월 폐간하게 되었다. -《中國新聞通史》 (修訂版) 2000年出版, 武漢大學出版社,, 劉家林

27) 과공진. 戈工振(1982).『中國報學史』, 臺北 台灣學生書局.

“我國報館的崛起, 一切思潮的發達, 皆由先生啟其端” 著名新聞學家戈公振, 1998年, 北京大學出版社『新聞學撮要』

무술변법운동 실패 후 일본 망명 생활 중 그는 계속해서 군주입헌제도 정치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였고 보황회(1899년), 헌정회(1906년), 정치신문사(1907년) 등의 정치단체를 조직하였다. 이런 정치단체의 사상을 선전하기 위해 많은 신문·잡지 간행물을 발간했다. 그는 평생 20여 종의 신문·잡지 등의 간행물을 창간하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신문사상, 신문 문체, 그리고 신문이론 등의 방면에서 천지개벽이라 할 만큼 탁월한 공헌을 하였다.

일본 망명 기간 중 서구 자산 계급의 사회정치학설과 신문사상을 접한 그는 서양의 정치사상과 신문 간행물을 발간한 경험과 교훈을 습득하여 신문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낸다. 그러한 그의 아이디어들은 중국 초기 자산계급의 신문이론사상과 내용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양계초는 중국 신문사상사에서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를 연 인물로 평가된다.

중국의 신문언론에 미친 양계초의 공헌은 네 가지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기사작성의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논설기사는 공, 요, 주, 적이라 하여 공정하게, 옳게 밝히며, 치밀하면서도 중국의 사회정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보도기사는 신속하고, 정확하며, 곧고, 바르게 보도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둘째, 신문문장은 편리하면서도 표현은 생기 있게 하고, 기존의 엄격한 문장격식에서 벗어나 신문문장체인 보장체를 창시했다. 셋째, 사회를 이끌고, 교정하며, 정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인으로서의 자세를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 넷째, 신문에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중국 근대 신문발전 과정에서 내용의 변화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양계초의 신문론에는 애국주의와 구국자강이 표현되어 있다. 그는 애국주의 사상을 통해 제국주의, 봉건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장

한다. 그는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 단체를 감독하는 한편 정부의 일상 정책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양계초의 신문론은 현대의 신문종사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 신문종사자들은 그들이 보도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애국, 애민(愛民思想), 국민이익을 우선 생각하고 국가를 건설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언론, 교육, 오락 등의 기능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사회 영역에 대한 문제를 포함 시켜야 한다.

양계초『신민설』의 주요내용은 신문・잡지 간행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신문 문체, 출판자유, 언론자유, 신문 종사자가 갖춰야 하는 직업윤리 등의 방면에서 새로운 인식을 제시하였고 그러한 사상은 신문사업에 대한 원칙적 근거가 되었다. 다음으로『신민설』의 주요내용인 자유론, 경쟁주의, 도덕론이 신문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다.

1) 신문에서 보이는 자유론

양계초는『신민설』의 자유론을 통해 신문자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계초는 서구 부르주아 자산계급의 자유주의 신문이론과『신민설』의 자유론을 융합하여 신문자유사상에 관한 자신의 독립적인 주장을 제시한다. 신문자유에는 언론자유와 출판자유가 포함된다.[28]

1902년 양계초는《신민총보》에 발표했던『신민설』내용 중 자유론 부분에서 설명한 자유를 바탕으로 중국 근대 언론출판자유에 대해 최초의 논설을 한다. 양계초는『신민설』제9절에서 자유는 “천하의 공리이자 인생의 필수품“이라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는 “자유는, 권리의 대표적인 것이다(自由者，權利之表征也)“ , “자유는 천하의 공리, 인생의 중요한 것이라서 향유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天下之公理，人生之要具，無往

28) 新聞學家戈公振, 1998年, 北京大學出版社『新聞學撮要』

而不適用者也)."[29] 라고 이야기 하며 자유는 모든 인간의 자연적 생득권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유 개념을 바탕으로 언론출판자유가 존재하는 것이 사회에게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3대 자유로 설명하고 이를 근대문명의 어머니라 하면서, 이 3대 자유는 문명보급의 불가결의 조건이라 설명하였다.

양계초는 언론의 주요 기능은 정부를 감독하고 국민을 향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신문사는 모든 자유를 보장 받아야 하고, 그러한 자유를 정부를 감독하는 하늘이 내린 역할을 수행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그는 신문사와 정부, 국민의 관계를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고용된 것이고, 신문사는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를 감독하는 관계라고 설명하였다.

신문・잡지 간행물을 발간하는데 자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회영역에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신문・잡지 간행물을 발간하거나 어떤 사건을 보도할 때는 사회공리, 법률 정신, 전체 이익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사회 공리, 법률 정신, 전체 이익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신문자유사상이다.

양계초는『신민설』에서 자유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하였다. 여기에 중국 근대 신문자유 관점을 제시한다.

첫째로, 신문・잡지 간행물과 정부 둘 사이의 관계는 명확해야 한다. 신문・잡지 간행물을 발간하는 기관과 정부의 지위는 평등해야 한다. 정부는 신문・잡지 간행물 출판을 독점하면 안 된다. 신문사업에 있어서 정부는 강제적인 지휘를 할 수 없다. 두 번째, 신문・잡지 간행물을 발간하는 목적은 국민 다수의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국민 전체 공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정한 태도를 뚜렷하게

29) 부록 표1 참조

나타내야 한다.

양계초는 허버트 스펜서의 진화론과 사회유기체론 관점을 도입해서 그의 신민사상 이론의 토대로 삼고 있는데, 특히 서구 선진 계몽사상에 나타나는 근대적인 언론발전관에 매우 깊은 깨우침을 받았다.

양계초의 신문자유는 서구 언론자유와 출판자유의 바탕 위에 중국 전통문화를 더하여 그의 신문자유를 형성하였다. 양계초는 그의 신문자유를 바탕으로 신문을 발간하였고 그 신문을 통해 그가 주장하고자 하는 정치사상을 더 쉽게 더 많은 사람에게 선전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서구 부르주아 군주입헌 정치 체계를 체계화하게 된다. 그는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과 잡지에 서양 사상가들의 논리를 소개하면서 스스로의 사상으로 체계화시켜 나간 것이다.

2) 신문에서 보이는 경쟁론

신문에서 보이는 양계초『신민설』경쟁론의 주요내용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다. 무술변법운동 실패 후 일본 망명 생활 동안 그는 운동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당시 근대 중국 사회에서 민지가 약해서 국민의 지지를 거의 얻지 못한 것을 무술변법운동의 주요한 실패의 원인이라 결론 짓고 그것을 극복할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그는『신민설』“경쟁론“ 부분에서 지혜에 대해 자세히 논설하고 있다. 지금 정치, 학술, 기예 등을 논하는 인간들은 모두 인간들의 장점을 취해서 우리의 단점을 보충해야 하는 것이 안다. 그러나 민덕, 민지, 민력이 그 바로 앞에 서술한 정치, 학술, 기예의 근원이라는 것은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는 본래 없었던 것으로서 우리를 보충하기 위해 새롭게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30]

30) 中國啓蒙思想文庫『新民說』梁啟超 著, 宋志明 選注, 遼寧人民出版社. 1994年 瀋陽 제3절 p.9

고 하며 신문・잡지 간행물 발간을 통해 국민에게 자강 의식, 국가론, 민족주의를 선전해서 국민의 민지성장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양계초는 민지를 배양하는데 효과적인 길이 신문이라고 주장한다.[31]

'신'민을 이루기 위해 경쟁정신은 본질적이다. 경쟁정신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희망, 열성, 지혜와 담력 네 가지가 중요한다. 그 중 지혜를 배양하는 것은 바로 민지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는 신문을 통해 국민들의 민지를 성장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3) 신문영역 종사를 대상으로 한 도덕론

양계초는『신민설』의 도덕론 주장을 통해 신문에서 기자가 보도한 사건은 진실해야 하는 동시에 도덕적 측면에서 판단의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는 신문사업이 사회에 책임을 다해야 하는 원칙과 의무에 대해 논설한다. 그는 신문종사자가 여덟 가지 도덕적 측면에서 직업윤리의 원칙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신문종사자는 보도하는 과정에서 정부 단체측만이 아니라 공민 개인측면으로도 공평하게 취재해야 하고, 어느 쪽이든 두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원칙이다. 둘째, 취재할 때 정부 단체의 입장과 개인의 입장을 동일하게 배려하는 원칙이다. 셋째, 신문, 보도 사건은 간단하고 광범위하게 보도하다면 좋다. 넷째, 신문 영역에의 종사자들은 자기 관점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다섯째, 신문, 보도 사건의 대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발표해야 한다. 그 순서는 중요한 대상부터 우선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섯째, 신문, 보도 사건을 발표할 때 형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중심 주제를 명확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일곱 번째, 취재할 때는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민이 정확하게

31) 梁啟超在 <夢學報・演繹報合敘> 中曾指出, "胡教小學, 教愚民, 實為今日救中國第一要務 p.36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여덟 번째, 보도할 때는 국민이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통속적이고 쉽게 표현한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신문・잡지 간행물을 발간하는 과정에서는 또 다섯 가지를 원칙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신문・잡지 등의 간행물을 발간 할 때는 이롭고 풍부한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 둘째, 신문・잡지 등의 간행물 종사자는 정성을 기울이고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 셋째, 신문・잡지 등의 간행물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강권을 제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취재내용을 발표해야 한다. 넷째,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당파를 편견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지나치게 보도하는 것, 열광적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그는《신민총보》제17기 [32]주요 내용에서 신문・잡지가 가지는 사회적 직책에 대해 이야기 한다. 하나는, 정부 기관을 감독하는 직책으로, 정부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를 발전시키는 정책을 펴고, 자본 등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감독이 없다면 국민에게 해로운 정책을 펼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언론은 정부를 감독하는 지위를 가진다. 또 다른 직책은, 국민의 의식을 지도하는 직책이다. 신문・잡지 간행물은 선전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교육 기능, 정치 선전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때문에 넓은 방면에서 높은 의식 형태를 국민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4) 신문 문체의 변화

양계초의『신민설』은 중심 내용이 참신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부분에서도 참신함을 보인다. 문언문(文言文)형식으로 기재하는 부분을 줄였다. 당시 사회에서 이런 형식을 소위 “신민체(新民體)“라고 불렀다. 그리

32) 부록 표1. 참조

고 신민총보》에『신민설』연제할 당시 편집 부분에서도 형식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옛날 것과 비교해 보면 새로운 쪽 번호와 문장 부호로 편집하는 방법을 도입해서 독자들이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지면 디자인을 무척 간단하게 하여 눈에 띄게 편집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근대 신문·잡지 간행물 발간 과정에서 취재내용 영역 뿐 만이 아니라 문체나 편집과 디자인 부분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5) 마오쩌둥 신민학회 창립에 끼친 영향

마오쩌동은 1911년 10월 신해혁명(辛亥革命)이 일어나자 혁명군에 입대하였다가 1912년 재대한 뒤 제1중학에 입학 하였으며, 다시 제1사범학교에 입학 하였다. 대학 공부나 외국 유학을 하지 못한 그는 이 학교에서, 영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중국의 봉건사상 비판에 힘썼던 교사 양창지(楊昌濟)를 만났고, 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재학 중이던 1917년 그는 신민학회(新民學會)를 조직한다.

1918년 마오쩌동은 학교를 졸업한 뒤 베이징으로 가서 후난 청년들의 외국 유학을 도왔다. 그해 10월 마오쩌둥은 소년중국학회에 가입하였고, 양창지의 소개로 베이징 대학 도서관 주임인 이다자오(李大釗)의 조교로 일하면서 수업을 청강하였다. 그는 철학회와 신문학연구회(新文學研究會)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 양창지에게 유물론적 철학과 윤리학 강의를 받았고, 비밀 학생 단체들과 접촉하면서 무정부주의에 관한 책을 읽어 그의 사상은 마르크스주의로 기울게 되었다. 1918년 4월 중국 호남성에서 마오쩌동[33], 채화상 등에 의해 창설된 신민학회는 애국운동과 반군벌

33) 마오쩌동(毛澤東)은 자 룬즈[潤之]. 호남성[湖南省] 샹탄현[湘潭縣] 사오산[韶山] 출생이다.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8세 때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13세까지 《논어》와 《사서(四書)》 등을 읽었다. 16세까지 아버지의 반대로 진학을 못하고 농사일을 도우며 틈틈이 책을 읽다가 1909년 둥산[東山]고등소학에 들어갔다. 그 뒤 창사[長沙]의 샹샹[湘鄕]중학으로 옮겼고, 동맹회 《민립보(民立報)》의 열렬한 독자가 되어 그 신문에 실린 반청론(反淸論)이나 혁명론에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양계초의 신민이론은 마오쩌동에게 큰 영향을 주고 신민학회를 창립하는 근거가 된다.

양계초의『신민설』에서는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해 국민들은 민덕, 민지, 민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오쩌동도 마찬가지로 신민학회의 창립 목적을 바로 근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였으며,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운동을 전개한다. 근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이 중요한 요소이다. 마오쩌동도 근대국가의 국민이 되기 위해 민덕, 민지, 민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일련의 정치활동에서도 마오쩌동과 양계초에는 공통점이 나타난다. 양계초와 마오쩌동은 자신의 정치사상을 선전하기 위해 신문・잡지 간행물을 발간하고 국민들에게 그들의 정치언론, 정치사상을 광범위 하게 선전한다.《신민총보》에 연재되었던 정치주장을 엮어『신민설』을 출판한 양계초는 “신민“을 중심사상으로 하여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노예근성과 봉건미신사상을 타파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봉건전통문화에서 벗어나 독립된 주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자유에 대해 새롭게 인식을 갖춰야 된다고 보았다. 마오쩌동도 마찬가지로 1919년부터 1926년까지 주보《샹강평론(湘江評論）》,《신호남(新湖南）》,《대공보(大公報）》,《호남통속보(湖南通俗報）》,인민통신사 등의 신문・잡지 간행물에서 지도하고 편집한 내용을 책으로 엮었다. 그는 이후 중국공산당 정당의 영수가 된 후 곧바로 신문・잡지 간행물을 출판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정당 정치사상을 국민에게 더욱 깊이 선전하였다. 그리고 양계초와 마오쩌동은 신문・잡지를 출판할 때 간단한 문체로 발표하여 그들의 사상을 국민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런 방법을 통해 그들은 그들의 정치관념, 언론이념을 국민에게 잘 선전하였다.

많은 감동을 받았다. ([네이버 지식백과] 마오쩌둥 [Mao Zedong, 毛澤東(모택동)] (두산백과))

2. 한국 사회 언론에 미친 영향

1) 구한말 시대 언론인 및 신문에 미친 영향

대한제국 시기에 신문 발행에 참여한 인물들은 대체로 당대의 대표적인 유학자이거나 유학적 소양을 갖춘 이들이었다고 본다. 중국의 전통과 사상을 바탕으로 하면서 서구의 자유언론사상을 자신의 방식으로 소화하여 설명한 양계초의 주장은 자연스럽게 설득력이 있는 논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 것이다(김영희, 1999).

구한말・대한제국 시대의 언론은《한성순보》와《한성주보》와 같은 관보 언론과 민간신문 언론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한성순보》와《한성주보》언론인들의 출신배경을 보면, ①박문국 관리 ②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서양의 개화문물을 접한 사람들 ③역관 출신의 외국어를 하는 해독자이다.

이에 비해 민간신문 언론인들의 배경은 ①한학파인 유근, 남궁억, 장지연 ,박은식, 성낙영, 나수연, 남궁준 등의 동도서기론자 또는 개신유학파들 ②서재필, 윤치호 등과 같은 해외유학파 ③양홍목, 이승만, 유영석, 양기탁, 주시경 등 관립 영어 학교나 배재학당 출신으로, 개화사상과 서구 시민사상 등을 터득한 국내의 신학문파이다.

이러한 배경을 지닌 구한말 시대의 언론인들의 사상 계보는 ①개화사상을 지닌《한성순보》와《한성주보》, ②자유민권사상의《독립신문》, ③민족주의 성향의《황성신문》,《제국신문》,《대한매일신보》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한성순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사회진화론은 중국 변법파의 논객 양계초의 저서『신민설』이 1902년에 간행되면서 1900년대의 조선 지식인들에게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양계초는 일본으로 망명

하여 대량으로 서양 서적과 일본인의 저서를 읽고 각 방면에 관하여 대단히 수준 높은 글을 쓰고 있었으며 이는《신민총보》에 발표되어 광범위한 공명을 얻고 있었다. 당시 한국사회는 위험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였으며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기 때문에 진정한 독립 국가를 상징하기 위하여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민족 민권, 국권 의식을 높이려 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새로운 지식을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으며, 많은 지식인들은 양계초의 문장에 주의하고 그의 언론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였다.

양계초는『신민설』에서 "오늘 열강들의 민족제국주의를 우리가 대적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민족제국주의를 행하는 방책밖에 없는데, 민족주의를 중국에서 실행하려면 신민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진화론은 1900년대에 전성기를 누리면서 일제 말기까지 조선 지식인들을 사로잡았다.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은 찰스 다윈(1890~1882)의 진화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진화'라는 개념을 널리 보급시키고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영국의 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허버트 스펜서였으며, 1859년 다윈의『종의 기원』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사회진화론적인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은 미국으로 수출되었는데 '미국의 스펜서'라 불뤼는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진화론자는 예일대 교수 윌리엄 그레이엄 섬너는 노골적인 '부자옹호론'을 폈다. 그는 "백만장자는 자연도태의 산물"이며, 부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선정된 사회의 대행자로 보는 것이 마땅하며 사회적으로도 '부자들의 존재'는 이로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진화론은 일본을 통해 1880년대 조선에도 수입되었다. 베스트셀러가 된 후쿠자와 유키치의『문명론의 개략』(1875)은 사회진화론을 국가간의 생존경쟁에 적용시켰으며, 이는 유길준을 비롯한 조선의 개화기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유길준이 1881년부터 1882년까지 일본 동경에서 유학하고 있을 당시 동경제국대학교에서 생물학을 강의한 미국인 에드워드 모스(Edward S. Morse)의 진화론은 일본 학계에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이때 진화론을 접한 유길준은 1883년 한국 최초의 도미사절인 보빙사의 일행으로 미국을 가게 되었고 모스를 찾아가 그를 스승으로 삼고 1885년까지 공부하였다.

19세기 후반 미국에서는 섬너의 주도하에 사회진화론이 큰 영향력을 발휘고 있을 당시, 윤치호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윤치호의 일기에 스펜서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윤치호도 사회진화론에 심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유입된 사회진화론에도 부국강병이란 목적에 의해 변용된 측면이 있다. 이것은 대한제국시기 전개된 민권운동이 국가의 독립이라는 과제 하에 제한 또는 희생된 결과를 초래하였던 원인이기도 하였다. 수용 초기부터 수많은 사상과 가치가 부국강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수용되었다는 점, 서로 다른 사상사적 배경과 발전과정을 경험한 서구의 사상과 가치들이 한국에 한꺼번에 수용되면서 한국의 계몽사상가들이 한국적 이해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또는 임의적으로 상호 연결하였다는 점, 사회진화론과 민권사상이 원형적으로는 상호 대립 모순되는 이론들인데도 애국계몽운동에서는 이들이 상호 보완관계로 결합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이 이러한 민권사상의 변용을 낳았다.

구한말의 상황에서 구국과 더불어 부국강병을 위해 자유주의 언론에서 주장하는 언론자유 개념을 수용하는 일이 중요하였다. 자유주의 관점에서

기자는 자유를 누리며, 사회적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는다. 장지연은 아마도 특수성, 보편성을 아우르는 언론인일 것이다.

구한말은 그 시대적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장지연, 남궁억, 박은식, 양기탁, 유근, 오세창 등 당대의 지식인들에게 ' 기자정신' 을 심각하게 논하게 했다. 그런 기자정신에 대한 논의에는 역사의식과 애국심이 포함되어 있었고,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민족 자유의 수호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양계초에게 영향 받은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양계초는 1899년에서 1905년《청의보》,《신민총보》에 기고한 글에서 자유를 개체가 아닌 '군체', 즉 집단의 자유로 논했다. 양계초는 '아(我)'를 논하면서 '일군지아'와 '일신지아'를 분리시키고, 전자는 일군의 사람이 늘 나아가 몸을 굽혀 '군'에 따르고 소아를 버리고 대아를 지켜야 한다는, 즉 타를 아끼고 타를 이롭게 하는 '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말해 양계초는 군체에서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했다.

이런 양계초의 사상은 구한말 '국사 언론인'의 모습 속에 구현되었으며, 그들의 구국운동에 스며들었다. 장지연은 국사적인 언론인으로서 국권 수호를 애국계몽사상가, 운동가의 임무로 간주했다.

한 상소에서 장지연은 시간이 지나고 풍속이 바뀜에 따라 덜고 보태며 이름을 달리한, 즉 '시이속변 손익이명(時移俗變, 損益異名)'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과거의 유학적 사고에서 새 것을 받아들이자는 장지연의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사고가 함축된 것이다. 그의 사고는 양계초가『신민설』에서 "옛것이라 해도 그것을 새것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으니,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그것을 새것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으니,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그것이 모두 오래된 것이기 때문이다(舅也而不得不謂之新, 惟其日新, 正所以全其舊也)"라고 말한 것을 연상하게 한다.(백지운, 2003)문제는 변화하는 현실에서 지켜야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

는 일이다.

장지연이《대한자강회월보》1906년 9월호에 쓴 <자강주의>는 양계초가 받아들였던 사회진화론적 시각을 반영했다. 양계초에 심취한 장지연은 양계초의 여러 글을 번역했는데, 1908년 광문사에서『중국혼』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백지운, 2003). 박노자는《황성신문》의 논객들에게 우승열패와 약육강식은 단순히 한국이 당면한 제국주의적 현실이라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우주와 세계의 불변의 법칙, 말하자면 삼강오륜과 나란히 설 만한 새로운 진리였다고 주장했다(조맹기, 2006).

양계초가 1902년에 낸『이태리 전국 삼걸전』은 신채호와 주시경에 의해 각각 다르게 번역되어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으며,《대한매일신보》와《황성신문》에 각각 따로 간추려져 연재되었다. 구한말 개화기 지식인들은 나라가 처한 여러 조건이 한국과 비슷하다 하여 이탈리아의 마치니나 카부르에 특별히 집착하였다.

양계초의 영웅숭배주의는 집단주의적 '대아(大我)'사상과도 통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신채호가《대한매일신보》1908년 9월 16일과 17일자에 쓴 <큰 나(大我)와 작은 나(小我)>에 반영되었다. 국가라는 '큰 나'를 위해 '작은 나'를 희생 하자는, 즉 멸사봉공의 메시지였다.

신채호는 자신의 영웅숭배주의를《대한매일신보》지면을 통해 열성적으로 전파했다. 신채호는《대한매일신보》1908년 1월 5일 자에 쓴 <영웅과 세계>에서 "영웅이라는 것은 세계를 창조한 신성한 존재며, 세계는 영웅의 활동 무대다", "영웅이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나라답게 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대한매일신보》1908년 8월 18일자에 쓴 <영웅을 길러내는 기계>에서 전 세계를 영웅을 잘 숭배하고 따르는 우등 민족국가와 영웅을 백안시하고 질시하는 열등 민족국가로 나눈 뒤, 조선은 후자의 경우라고 주장했다.

신채호는 조선민족의 특수성을 서술하면서 양계초의 신민사상과 합쳐서 융합하는 사상을 주장한다. 조선인의 역사를 통해 특수성의 관점에서 열거하고 분석하면서도, 동시에《대한매일신보》에 연재한 <20세기 신국민(新國民)>에서 신채호는 평등, 자유, 정의 등을 새 시대의 덕목으로 나열한다. 인간은 강한 자, 약한 자, 부자, 가난한 자 등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지금까지 조선은 씨족・관민・적서 등의 계급 불평등이 성행하였다. 불평등 아래 조선은 '자유를 모르는 나라'였으며, 국가의 주인은 인민이 아니었다. 사심과 미신은 '국민의 공동의 도덕'인 '민덕'을 방해하였다. 양계초의『신민설』에서 나오는 도덕론과 마찬가지로 개인 대 개인 사이의 도덕은 사덕이며, 개인과 사회, 국가 사이의 도덕은 공덕이라 하였다.

신채호는 양계초가《중국사서론》에서 말한바, 즉 역사가는 반드시 사실의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한다는 권고에 충실하였다. 역사적 사실의 전후관계를 보아 같은 종류의 갈래를 수집하고, 사실의 과장을 줄이고, 또한 유래의 의문을 지속성, 독립성의 관점에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조직적으로 정돈함으로써 인과관계를 민족의 개념, 국가, 역사의 발전법칙과 연계시킨 것이다.

윤치호는 그의 후배 안창호 같은 기독교 계열 인물들을 홍사 즉 지도적 인사로 일으키는 사업을 조선독립의 기초로 인식했다. 청년학우회 설립 시절부터 안창호는 '지도자 수양의 4대 덕목'을 표어로 내걸었다. 박노자의 무실, 역행, 충의, 용감 등 4대 덕목은 양계초가 생각했던 선각자로서 지도자 덕목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며, 양계초의 저작에 심취했던 안창호가 이를 평양의 대성학교 교재로 쓰기도 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미 1907년에 결성된 안창호, 신채호, 양기탁 등의 신민회(新民會)라는 비밀결사도 양계초의 사상을 중요한 지침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신민회는 독립운동가와 서울 및 서북 지방의 신흥 상공인을 비롯한 사

회의 여러 인사가 참여해 비밀리에 조직한 비밀결사이다. 신민회 창립이후 교육과 언론, 출판 등의 부문에서 신민회는 국권회복운동에 동참하였다(차배근, 1985). 신민회에도 양계초의 영향이 큰다. 하와이 신민회는 조직의 명칭에 신민이 포함된다는 점, 강령을 보았을 때 동족 단결·민지계발·국정쇄신 등 양계초 논설에서 익숙한 어휘와 내용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 하와이에는 양계초의《신민총보》의 판매소가 있어 비교적 양계초 저술을 구하기 용이했다는 정황, 그리고 양계초가 1899년 하와이를 방문한 이후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점을 보면 양계초의 영향력을 컸음을 알 수 있다. 신민의 의의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문건은 전해지지 않으나 안창호는 <음빙실문집>[34]을 신민회 산하 교육기관이 대성학교 한문과 교과서로 채택하고 애국계몽사상가에게 <음빙실문집>의 독서를 권유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35]

거의 모든 개화 학교에서는 양계초의 저서『신민설』을 한문 교과서로 사용했으며, 1908년 한글로 번역돼 나온 뒤에도 교재로 사용했다. 개화기 잡지인〖교남교육회 잡지〗는 창간호부터 그 책을 부분적으로 번역해 싣기도 했다. 그 밖에도《서우》,《대학자강회월보》,《호남학보》,《대한협회회보》,《기호흥학회월보》등 중앙과 지방의 학회마다 앞 다투어 양계초의 글들을 번역해 게재하였다. 이처럼『신민설』은 조선 지식인들의 필독서였던 셈이다.

양계초의 '문약망국론'도 호응을 얻어 상무정신이 강조되었다. 예컨대,《대한학회월보》1908년 6월호에 실린 글처럼 "등이 구부러지고 얼굴이

34) 부록 표2. 참조

35) 신민회와 관련해서는 신용하, 「신민회의 창건과 그 국권회복운동」<한국학보>8 9,1977. 이재순「한말 신민회에 관한 연구」,<이대사원>14, 1977. 윤경로「신민회의 성립과정」,<사총>30, 1986. 윤경로「신민회의 지방조직에 대하여」<한성사학>4, 1986 -「大韓帝國時期的韓國知識界通過中國梁啟超而對近代民權思想的接受-韓國言論中對於"新民"和"愛國"的理解-」, 中國近現代史研究 第21輯, 錢東炫

창백하고 늘 겁에 질리는 문약한 조선인을 상무적 전사로 변형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풍미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 운동회 등이 성황을 이루다. 신채호는 ’민족 운명’에 ’상무정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문을 숭상하는 유교 교육이 한국의 군사적 용맹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그 ’생존능력’을 크게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황성신문》은 망국 직전인 1910년 6월 28일자에서 7월 6일자까지 <문숭의 폐해를 통론함>이라는 장문의 연재 기사를 실었다.

2) 구한말 신문에서 보이는 애국이론

1890년대 이후의 대표적인 신문과 잡지는 변법운동을 주도한 개혁운동가들이 개혁을 추진하는 수단이었다.

『신민설』의 특징은 특히 국가론과 국민론에서 잘 드러나다. 양계초가 서구 국가론에 자신의 관점을 섞은 것인데 그 자신만의 특징은 국가론에서 경쟁의식이 민권 내지 민주주의, 애국에 훨씬 우선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계초가『신민설』에서 발표했던 주요내용 중 국가론은 구한말시대 애국계몽 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구한말 시대 애국계몽 사상가는 국가론을 바탕으로 애국이론 관념을 발표한다. 언론, 신문 간행물을 통해 애국관념을 국민에게 선전하고 대한제국의 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1905년 10월18일《대한매일신보》[36]에서 <애국의 목적>이란 신문

---

36) 부록 표2. 참조.
1904년 7월 양기탁과 영국인 배설(Ernest Thomas Bethell)에 의해《대한매일신보》가 창간된다. 1904년부터 국권피탈 때까지 발간되었던 일간신문으로 , 2012년 10월 17일 등록문화재 제509호로 지정. 양기탁의 추천으로 이 신문의 주필로 역임하였으나 주로 객원으로서 논설만 기고하였다. 양기탁은 1871년~1938년 독립운동가, 언론인, 1904년《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다. 1907년 안창호 선생 등과 조국 광복을 도모하기 위한 비밀결사인 신민회를 조직한다. 1920《동아일보》창간 때 편집고문에 취임하였으며, 고려혁명당을 세워 무장투쟁을 지원한다. 투옥과 탈출, 투쟁을 쉼 없이 이어나갔으며 193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이 되었다.

기사가 게재되었다. 1908년 7월31일《대한매일신보》는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 국민대상으로 애국사상 관념을 가져야 하고, 국가의 부흥 및 쇠락, 전쟁 및 평화 등의 것이 국민과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양계초의 저술 중《신민총보》에 연재된『신민설』보다도 1906년 기존의 논설들을 편집해서 발표한 단행본『중국혼』이 조선에서는 보다 많은 관심이 모아진다. 1906년 12월 24일《태극학보》에서 양계초의『중국혼』이 번역되어 실렸다. 한국적으로 변용시킨 “한국혼“개념은 애국에 대한 강조를 선명하게 반영함으로써 “중국혼“개념에 한국 상황을 대입시킨 경우로 볼 수 있다.『중국혼』에 수록된 글들은 <當以競爭求和平（論中國今日當以競爭求和平）>[37] 과 <排外評議>를 제외하면 모두 이미 시중에 유포되어 있었던『음빙실문집』에 수록된 글들이다. 그럼에도 '중국혼'이라는 저서의 번역문이《공립신보》에 연재되고, 간행된 지 2년도 안 되어 한국 언론의 대표적 필자인 장지연에 의해 전문이 번역 소개되었다.

1908년《대한협회회보》에서 언론에 소개된 양계초 번역문들은 대체로 문집이나 단행본의 일부가 단편적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시리즈로 연재되는 경우가 있어 눈길을 끄는데『음빙실문집』의 요약을 연재한《대한협회회보》『영집절략(永集節略)』, 1906년에 발행된『중국혼』의 요약을 연재한《공립신보》가 있다. 특별히 단행본으로 소개된 경우는,『월남망국사』,『음빙실자유서』,『중국혼』그리고 애국적 인물전기가 있다.[38]

---

37) 부록 표2.참조.

38) 양계초의 역사서 또는 인물전이 당시 한국인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는 한편 구체적 사례를 통한 방향 제시의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은 -牛林杰, <양계초 역사·전기소설의 한국적 수용>, 중한인문과학연구 6-1, 2001, pp.66-94

3) 구한말 신문에서 보이는 민지, 민권사상

대한제국 시기 언론에 광범위한 공감을 불러일으킨 양계초의 언론자유 사상은 시기적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세기말 정치평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 시기 양계초의 "구국"론은 민지의 개발로부터 출발한다. 난세에서는 힘으로 이기고 성세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것과 힘이 상승하여 성세에는 지혜로써 이긴다는 春秋三世의 義가「學校總論」의 서두에서 인용되는 데서 확인되는 바이기도 하다.[39]

그리고 이러한 민지의 개발을 위한 국민성 개조를 역설하였다.『자강론(自助論)』[40]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면서 자조의 정신은 개인에게 진정한 발달의 근저요, 많은 사람이 이 정신을 실행하는 것은 실로 그 국가를 강성하게 하는 참된 연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양계초에게 있어 최고의 애국은 법과 제도를 바꾸는 데 있지 않고 사람들을 도와 각자 자유 독립의 행동으로 스스로 개선하여 향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 시기 양계초의 민지는 부국강병이라는 지상과제에 강조점이 주어진 제한된 의미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민설』에서는 경쟁주의 가운데 지혜를 논설하고 있다. 신문・잡지 간행물 발간을 통해 국민에게 자강, 국가론 등의 민족주의를 선전해서 국민의 민지성장을 촉진하야 한다.[41]1905년 8월 18일《황성신문》에서는 민지를 개발하는 것이, 민권을 빠르게 이루는 것이 당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부국의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근대 중국 사회는 민지가 약해서 변법자강운동이 국민의 지지를 거의 얻지 못하고 실패로 끝난다. 대한제국 시기의 애국계몽운동이 실패한 원인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시 구한말시대 신문・잡지 간행물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민

39) 부록 표2. 참조.「학교총론」,<서우> 제2호, 1907. 1. 1

40)『自助論』, <서우> 제13-14호, 1907년 12월 01일-1908년 1월 1일

41) 中國啓蒙思想文庫 『新民說』 梁啟超 著, 宋志明 選注, 遼寧人民出版社, 1994年 瀋陽 제3절 P.9

지를 배양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한다. 민지를 배양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노예근성에서 벗어나고 '신'민을 형성시키는 것을 목표를 삼다.

4)구한말 신문에서 보이는 신민 형성의 조건

『신민설』의 주요내용은 도덕론, 국가론, 경쟁론, 권리의무론, 자유론, 자치정신, 상무정신, 정치지식, 정치능력 등으로 구성 되는데, 그 나머지 대부분은 지식 교육과 도덕 교육에 편중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민지, 민력, 민덕의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주요내용은 국민들을 "신민"으로 배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시 조선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망국의 위험에 처해 있었다. 조선 애국계몽 사상가들은 양계초의 영향을 받아 전면적으로 신민을 길러내는 문제의 중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된다.

이 시대 신문·잡지 등의 간행물에 양계초의『신민설』이 미친 영향력에 대한 대목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그의 신민설에서 나온 상무정신의 주요내용은 생존경쟁의 민족국가시대에, 국가의 건재를 보장하고 국민인 나의 건재를 보장해줄 가장 분명한 것은 실은 그 무엇보다도 군사력이라는 것이다.

1904년 11월10일《황성신문》에서 〈사회의 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상무정신, 경쟁사상에 대한 논설을 발간하였다.

1904년 11월 18일《황성신문》에서는 〈자유론〉[42]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논설을 발간한다. 이 논설은 양계초의 신민설에서 발표했던 자유론에 관련한 내용이다. 애국사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술을 통해 국민들에게 자유의 중요성을 더 깊이 논설했다.

양계초가『신민설』에서 발표했던 자치능력에 따르면 자치능력을 잃으

42) 부록 표2. 참조.

면 자신의 인간다움을 지킬 수도 없게 된다. 자치능력은 인간다움의 조건이다.

1905년 5월 25일《황성신문》은 〈자치능력〉[43]이란 제목으로 사회와 국가, 개인의 자치능력을 살펴 국민들이 자치능력을 갖춰야 하는 이유를 논설한다. 그리고 1907년 7월《황성신문》에서 〈사상과 능력〉이란 제목으로 조선 국민의 능력배양의 중요성을 논설한다. 또, 1908년 9월 23일《대한매일신보》는 정치와 자치능력에 대해 국민에게 선전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1910년 2월 22일부터 3월3일까지《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된 신채호가 발표했던 글을 모아『20세기신국민설(二十一世紀新國民說)』[44]을 발간하였다. 대한제국시기 대표적 애국계몽가인 신채호의 신국민론은 양계초의 신민사상과 연관된 대표적 저술로 평가되고 있다. 신채호의『20세기 신국민설』은 신국민의 필요성을 역설한 도입부인 국민과 각오, 본론의 국민과 도덕(평등, 자유, 정의, 의용, 공공), 국민과 무력(물질적, 무력, 정신적 무력), 국민과 경제(근면, 진취, 정치권리, 사회정책, 국민경제적 사상), 국민과 정치(정치사상, 정치능력), 국민과 교육(상무교육, 의무교육

43) 부록 표2. 참조.

44) 20세기의 국가경쟁은 그 국민전체에 있으며 그 승패의 결과가 한 두 사람에서 비롯하지 아니하고 그 국민전체로부터 비롯하여 정치가는 정치로 경쟁하며 종교가는 종교로 경쟁하며 실업가는 실업으로 경쟁하며 혹은 무력으로 하며 혹은 학술로 하여 그 국민전체가 우수한 자는 승리하고 열등한 자는 패배하니…그러므로 국민 동포가 20세기 신국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20세기 신국민이라고 표제를 단 첫째 날부터 동포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우리가 국민의 각오를 논할 때에 세계의 추세, 문명의 진보, 한국의 지위를 논하였으며, 우리가 국민의 도덕을 논할 때에 평등, 자유, 정의, 의용, 공공을 논하였으며, 우리가 국민의 무력을 논할 때에 정신계와 물질계의 무력발흥을 논하였으며, 우리가 국민의 경제를 논할 때에 근면, 진취, 국민경제를 논하였으며, 우리가 국민의 정치를 논할 때에 사상, 능력을 논하였으며, 우리가 국민의 교육을 논할 때에 상무교육, 의무교육을 논하였으며, 우리가 국민의 종교를 논할 때에 국가적 종교를 논하였나니, 오호라 동포여, 한번 이 말을 들어보라. 듣고 이 말이 옳으면 실행해 보라. 실행하여 20세게 신국민이 될지어다. -1901년 2월 22일, 3월 2일《대한매일신보》연재된 신채호의「20세기신국민설 (二十一世紀新國民說)」

제도), 국민과 종교(국민적 종교, 유교 개량, 예수교 확장) 등 일곱 부분으로 구성된다. 사회진화론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양계초의 신민사상의 영향을 읽을 수 있다.[45]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45) 우림걸 牛林杰, 「20세기초 양계초 애국계몽사상의 한국적 수용-애국사상과 신민사상을 중심으로-」(<중한인문과학연구> 8,2002. 6, pp15-39)에서는 양계초의 애국사상이 잘 나타난 논설 <애국론>과 단행본 <중국혼>이 대단한 관심을 끌었다고 소개하고 신채호의 신국민론을 양계초 신민사상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한다.

제3장 결론 및 한계점

본 논문은 한·중 양국 신문을 중심으로 양계초의『신민설』의 형성배경과 그 성격을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신민설이 양국 근대 초기 신문 발전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신민설』형성의 역사·문화적 배경,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고, 그 주요 내용인 권리의무론, 국가론, 경쟁론, 자유론, 도덕론을 분석했다. 신문에서『신민설』이 양국 신문 발전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중국의 근대 신문이 출현하는 과정에서 독보적 역할을 하였으며 언론출판자유, 신문자유, 신문종사자의 직업윤리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문 문체에 대해 문언문 문체로부터 간단한 신문체로 변화하는 과정에 초석을 놓았다. 그의 사상은 구한말 시대 신문발전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다양한 예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앞서 제시했던 문제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다.

첫째, 양계초의『신민설』에 나타나는 신민사상의 특징에 대해 요약하면 양계초의 신민이론은 '민지'와 '민력'보다도 '민덕'을 강조하면서 민지, 민력과 관련된 능력까지도 도덕의 영역으로 흡수하였다. 국가, 권리의무, 자유 등 제도적 차원에서 추구되어야 할, 또는 조직적인 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에 각각 주장 또는 정신이라는 것을 붙여, 국가론, 권리의무론, 자유론, 상무정신, 경쟁론 등의 개념으로 만들었다. 근대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도덕·윤리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그의『신민설』은 국민의 민지를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둘째, 그의 신민사상은 중국 근대 신문 초기 발전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양계초의 신민사상이 제시했던 자유론, 경쟁론, 도덕론은 신문 영역에

서 신문자유로 전개되었다. 이 신문자유사상은 언론출판자유에 대한 중국 최초의 논설이다. 양계초는 정부와 신문・잡지 간행물은 서로 깊은 관계있다 보고 정부는 신문・잡지 간행물을 발간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신문을 독점하는 것은 단호하게 반대하였다. 그는 언론출판자유, 신문자유를 보장하고 신문 판매시장을 자유롭게 발전시킬 것을 제시한다. 그리고 신문・잡지 간행물이 사회 영역에서 중요하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신문은 국민의 민지를 배양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문에서 보이는 도덕론은 신문 종사자는 정성을 기울이고 진실로 보도해야 한다. 신문 종사자는 기사를 발표할 때 취재내용을 객관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동시에 도덕적 측면을 판단하고 근거를 가져야 하며 신문이 사회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근대 신문 발전 초기 신문 문체를 문언문 문체에서 부터 간단한 신문체로 변화하는 과정을 선도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쪽 번호와 문장 부호의 편집하는 방법을 도입해서 독자가 지식을 더 편하게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

셋째, 당시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던 구한말 조선에 양계초의 『신민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구한말은 구국과 더불어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 중요한 지식인들의 중요한 임무였다. 자유주의 관점에서 지식인은 자유를 누리며, 사회적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는다. 당시 시대적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양계초의 논설은 많은 관심은 끌었다. 양계초의 신민사상은 구한말 지식인 장지연, 윤치호, 신채호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장지연은 <중국혼>을 번역하였고, 신문・잡지 간행물에서도 양계초의『신민설』이 곳곳에서 소개되고 있다.《대한매일신보》,《태극학보》,《황성신문》등의 신문에 발표된 논설로 양계초의 신민사상은 구한말 언론에게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양계초의 신민사상에 나타나는 국가론을 통하여 구한말시대 애국계몽운동사상가들은 애국론을 발표하고 언론, 신문 간행물을 통해 애국관념을 국민에게 선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양계초는 당시 근대 중국 사회에서 민지가 약해 변법자강운동이 국민의 지지를 거의 얻지 못해 실패했다고 분석하였는데, 대한제국시기의 애국계몽운동이 실패한 원인도 이와 비슷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당시 구한말시대 신문·잡지 간행물 발간을 통해 국민들의 민지를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민지를 배양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이 노예근성을 벗어나고 '신'민을 형성시킨 것을 목표로 삼는데 이는 신민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넷째, 현대사회에 신민이론이 가지는 의의는 '신'민을 이루하기 위해 사회측면, 개인측면, 정부측면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야 된다. 민지, 국민소질의 배양하는 것은 오늘 중국 당대 사회에서 국민 소질 교육을 배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12년 12월 베이징대학교에서 법학, 정치학, 사학 학자들은 '다시 신민설로 되돌아가기'를 주제로 학술회를 개최하였다. 양계초『신민설』의 주요내용이 아직도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양계초의 신민사상을 한·중 양국 신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사상의 전체를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와, 신민사상이 큰 영향력을 행사한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다는 한계도 함께 지니고 있다. 앞으로 양계초의『신민설』각각의 측면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이상과 실체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깊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논문・학술지 및 단행본

강만생(1987). 황성신문의 현실개혁구상연구, 학림 제19집. 연세대학교.

강준호 역, 매스 피리 저(2011). 101명의 위대한 철학자, 서광사 출판사.

구범진(1994). 1920년대초 양계초의 과학인식과 동서 문화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논집 18.

구자혁(1990). 장지연 사상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춘남(1994). 양계초의 정치사상연구: 국가주의 자유주의 마르크시즘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재호(2006).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공리의 갈등과 조정: 존 스튜어트밀의 자유론과 공리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춘남(1996). 자유주의 사조의 중국적 수용: 양계초를 중심으로, 동국사학 30.

김재홍・신진숙(2009). 만해 사상과 양계초의『新民說』에 나타난 '마음'의 의미, 국어국문학 제152집.

김명희(1994).《황성신문》관련인물들의 언론사상, 언론학회 편, 1994년 가을철 정기학술발표회2.

김영희(1999). 대한제국시기 개신유학자들의 언론사상과 양계초, 한국언론학보 제43-4호.

김종윤(1991). 양계초의 진화사상에 대한 고찰(1895~1911), 교육논총 6.

김원식(2003). 동아시아 사상과 민주주의, 사회와 철학연구회, 이학사.

김민환(1988). 개화기 민족지의 사회사상, 나남출판.

김민환(1996). 한국언론사, 사회비평사 1996.

도상범(1995). 梁啟超의『新民說』硏究,忠北史學,第88('95.12)pp.89-105 忠北大學校史學會.

도상범(1993). 梁啟超의 新民思想, 忠北史學 第6輯 6('93.12)pp.89-115 忠北大學校史學會.

리쩌허우(2005). 임춘성 역 중국 근대 사상사론, 한길사.

리용필(1993). 조선신문 100년사, 나남출판 1993.

모이형/송항룡 옮김(1978). 양계초, 태양문화사.

민구기(1965). 양계초사상의 구조적 이해, 역사학보 28.

미조구찌 유조/정태섭, 김용천 옮김(2004). 중국의 공과 사, 신서원.

박경민(1990). 신채호 申采浩의 國家獨立思想,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찬승(1988). 한말 신채호의 역사관과 역사학,『한국문화』9,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박충석 樸忠錫 (1989). 申采浩의 국가관념에 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백현숙(1991). 張志淵의 自強思想,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백지운(2000). 오리엔탈리즘과 옥시덴탈리즘-양계초의『신민설』해석을 위한 방법론적 접근, 중국현대문학 제19호.

백지운(2003). 近代性 담론을 통한 梁啟超 啓蒙思想 재고찰,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백지운(2004).『자유서』를 구성하는 텍스트들-량치차오(梁啟超)의 '자유'의 개념에 대한 연구, 중국현대문학 제13호.

백영서(1997). 대한제국시기 한국언론인 중국 인식, 역사학보 제153집, 역사학회 1997.

백영서(2000). 동아시아의 귀환: 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창작과 비평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교육연구단(2004). 근대 극복을 꿈꾸는 동아시아의 도전, 청어람 미디어.

시어도어 드 배리/표정훈 옮김(1998). 중국의 자유 전통, 이산.

신용하(1977). 신민회의 창건과 국권회복운동, 한국학보 8-9집.

신연재(1991). 동아시아 3국의 社會進化論 受容에 관한 연구: 加藤弘之, 梁啟超, 申采浩의 사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정근(1999). 고대 중국 '인(仁)' 사상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승하(1998). 구한말 애국계몽운동시기 양계초 문장의 전입과 그 영향, 아세아연구 제100호.

신진숙(2009). 동아시아 근대담론 속에 나타난 민족과 윤리주체의 의미 고찰-萬海 사상과 梁啟超의『新民說』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제53집.

신영철(1972). 申采浩의 자강론적 역사상, 한국사상 제10집.

신영재(1994). 스펜서(Hebert Spencer)의 사회진화론과 자유주의, 국제정치논총 34.

신채호(1977). 신채호전집, 형설출판사 1977.

안종목(1997). 황성신문의 애국계몽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일모(2001). '자유'를 둘러싼 유교적 담론, 철학연구 52.

양일모(2002). 청말 서구 정치사상의 수용과 유교적 인정(仁政) 담론의 전개, 유교문화연구 4.

여영시/김종윤 옮김(1997). 중국 전통적 가치체계의 현대적 의의, 전주대학교 출판부.

우림걸(2000). 한국 개화기 문학에 끼친 양계초의 영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우림걸(2001). 20세기초 양계초 애국계몽사상의 한국적 수용, 중한인문과학연구 4.

우남숙(1994). 自強 獨立 思想 연구: 張志淵·樸殷植·申采浩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우실하(1988). 단재 申采浩 애국계몽사상의 전개과정에 대해 연구(1905~1910):사상적 배경 및 사상전개의 기본구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재천(1990). 한국근대신문의 생선에 미친 개화사상과 민족주의의 영향, 한일언론학 학술회의 발표문, 한국어론학회 1990.

유재천(2011). 유채천저작집1 한국언론사상사 서설, ㈜지식산업사.

윤혜영(1989). 변법운동과 입헌운동,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소 편, 강좌중국사Ⅵ, 지식산업사.

이종은(1997). 유교에서의 개인, 한국정치연구 7.

이명수(1989). 양계초의 신민설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소은(2002). 양계초로부터 신채호로 수용된 사회진화론 인식에 관한 연구: 양계초 신민설이 신채호의 신국민설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보람(2006). 량치차오(梁啟超)의「신민설」에 나타난 근대적 개인, 한림대학교대학원 철학 석사학위논문.

이승달(1987). 구한말 서구 교유사조의 수용과정 연구: 매개자로서의 양계초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명수(1987). 양계초의 신민설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명수(1990). '신민' 이론에 보이는 양계초의 역사인식. 동양철학연구.

이혜경(2002). 천하관과 근대화론: 梁啟超를 중심으로, 문학과 지성사.

이혜경(2006). 양계초『新民說』, <철학사상>별책부록 제7권 제5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이화여대 한국문화 연구원(2004).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이광린(1989). 개화파와 개화사상에 관한 연구, 일조각.

임육생/이병주 옮김(1990). 중국의식의 위기, 대광 문화사.

전동현 錢東炫(2002). 大韓帝國時期 中國 梁啟超를 통한 近代的 民權概念의 수용-韓國言論 "新民"과 "愛國"理解-,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전동현(2005). 청말 양계초의 대한제국시기 한국 인식-망국-자강 개념을 중심으로,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전복희(1996).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 구한말을 중심으로. 한울아카데미.

정진석(1983). 한국언론사연구, 일조각 1983.

정진석(1987). 대한매일신보와 배설, 나남출판.

정진석(1990). 한국언론사, 나남출판.

정진석(1995). 인물한국언론사, 나남출판.

조경란(1995). 進化論의 中國的수용과 역사인식의 진화: 嚴複·梁啟超·章炳麟·魯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경란(1998). 중국 근대에서 국가와 민 개념, 시대와 철학 17.

조경란(2000). 중국의 전통과 근대에서 개체와 집단의 문제, 철학연구 49.

조병한(2008). 양계초의 국민국가론과 민권·민족 관념, 서강인문논총 제22집.

조맹기(2006). 한국언론인물사상사, 나남출판 1146.
조맹기(1997). 한국 언론사의 이해, 서강대학교 출판부, 개정・증보 3판.
차배근(1985). 중국근대언론사, 나남출판.
채 백(1990). 한국 근대 신문 형성과정에 있어서의 일본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형욱(2009). 조선의 梁啟超 수용과 梁啟超의 조선에 대한 인식, 韓國學論集, 第45輯.
최정훈(1991). 언론사와 언론사상사, <언론사회문화>창간호,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1991.
최기영(1991). 대한제국시기 신문연구, 일조각.
최 준(1982). 한국신문논고, 일조작.
최기영(2003). 한국근대계몽사상연구, 일조각.
허도학(1997). 梁啟超思想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종동(1982). 梁啟超 研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종동(1987). 양계초의 신민설에 대하여, 중국학지 4.

외국문헌

중국 참고 자료

단행본

梁啟超及其《新民說》原著類資料：
林志鈞校編(1989).《飮冰室合集》，中華書局.
丁文江 、趙豐田(1983).《梁啟超年譜長編》，上海人民出版社.

葛懋春 、蔣俊(1984).《梁啟超哲學思想論文選》，北京大學出版社.

夏曉虹(1992).《梁啟超文選（上 、下冊）》，中國廣播電視出版社.

2001年《飲冰室文集》點校本，昆明 雲南教育出版社.

1984年《梁啟超選集》上海 上海人民出版社.

梁啟超：新民說【M】北京 中州古籍出版社，1998年09月第一次出版 .

梁啟超：飲冰室合集(1—12册)【M】，北京 中華書局，1989.

徐良伯(1999).《中華近代 愛國主義精神 通鑒》，東南大學出版社.

徐松榮(1989).《梁啟超國民性改造思想述論》，東南大學出版社.

賴建誠(1998).《梁啟超與『民報』對社會主義和土地國有論的經濟爭辯》,中華書局.

龔立人(1999).《新民與良知啟悟：論梁啟超的新民說》，中華書局.

李長利(2000).《梁啟超 '新民說' 與社會生存分析》，新華出版社.

巴斯蒂(1999).《1919年梁啟超游法情形與其晚年貶歐洲的社會文化思想》，新華出版社.

潘強恩(1999).《被歷史“遺忘的角落”-梁啟超的 新民學說與 政治思想》，新華出版社.

戈工振(1982).《中國報學史》，臺北 台灣學生書局.

吳廷俊(1990).《中國新聞業歷史綱要》，北京 華中理工大學出版社.

方漢奇(1992).《中國新聞事業通史》，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朱傳譽(1979).《中國民意新聞自由發展史》，台北 正中書局.

韓國近代文學研究資料集・開化期新聞篇. 二 三文社， 1987.

韓國近代文學研究資料集・開化期新聞篇. 六 三文社，1987.

韓國近代文學研究資料集・開化期新聞篇. 五 三文社，1987.

韓國近代文學研究資料集・開化期新聞篇. 四 三文社，1987.

徐刚(2006)．梁啟超傳[M]．廣州：廣東旅遊出版社．

蔡尚思，方行 著，『譚嗣同全集』北京 中華書局，1998年.

鄭大華，鄒小華(2005)．思想家与近代中国思想[M]．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候宜杰(2000). 新民時代：梁啟超文選 【M】，天津 百花文藝出版社.

郭漢民(2004). 中國近代思想與思潮【M】，湖南長沙 嶽麓書局.

张灏(1995). 梁啟超與 中國思想的過渡改造丶振興中國的根本途徑[H]．南京 江蘇人民出版社.

黃砷 評注(1998). 梁啟超．新民說[M]．鄭州 中州古籍出版社，1998：62．

李國俊 編(1986).《梁啟超著述系年》，復旦大學出版社，1986.

논문・학술지

顧紅亮(2010).《梁啟超<新民說>權利概念的多重含義》,《江蘇社會科學》2010年第6期.

孟昭虹(2000).《二十世紀初梁啟超对国民劣根性的揭露和批判》,《學術交流》2000年第3期.

楊義銀(1994).《梁啟超改造國民性構想之評說》，《河北學刊》，1994年第6期.

沈善洪，王凤贤(1984).梁啟超《新民說》倫理思想初探[J]．學術月刊，1984(11)：29．

呂濱(2000)．梁啟超對新民理論的探討[J]．江西社會科學，2000(7)：14．

胡代勝(1987). 論梁啟超新民思想的形成【J】，中州學刊1987(5)：126．

胡代勝(1989). 梁啟超《新民說》的文化尋根[J]．江漢論壇，1989(2)：64.

程立濤(2007). “私德外推即为公德“’吗9-一論梁啟超的公德私德观[J]．河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7(2)：54．

石烈娟(2005). 近20年來梁啟超《新民說》研究综述[J]. 广西社会科學, 2005年, 09期.

侯利敏(2007). 淺議梁啟超的新民思想[J]. 哈爾濱學院學報, 2007年, 09期.

張慶春(2007). 淺議梁啟超的新民思想[J]. 知識經濟, 2007年, 10期.

王巨光(2007). 簡論梁啟超的新民思想[J]. 學习月刊, 2007年, 20期.

虞文華, 陈勇軍(2004). 試論梁啟超新民德思想的內在特點[J]. 廣東社會科學, 2004年, 02期.

徐松榮(2005). 論梁啟超的新民學说[J]. 湖南第一師範學報, 2005年, 01期.

吴乃華(2003). 梁啟超新民思想初探[J]. 廣州社會主義學院學報, 2003年, 01期.

彭平一(2003). 論國家主義理論對梁啟超新民思想的影響[J]. 湖南城市學院學報,2003年, 04期.

張傑亮(2010). 梁啟超《新民說》“競爭”觀念的詮釋, 華東師范大學, 哲學專業, 碩士學位論文.

李新英(2009). 梁啟超新民倫理思想探析, 河北師范大學, 倫理學專業, 碩士學位論文.

참고 사이트

http://www.naver.com/

중국지식신망 http://www.cnki.net/

http://finance.ifeng.com/opinion/shukan/20130116/7565880.shtml

http://www.docin.com/

부록

표1. 편명, 저작연대,《신민총보》의 호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신민설』의 목차 및 저술 시기[46)]

	편 명	저작연대	호수
1	서론	1902.2.8	1
2	오늘날 중국에서 신민의 급박함을 논함	1902.2.8	1
3	신민의 의미를 해석함	1902.2.8	1
4	우승열패의 이론으로 신민의 결과를 증명하고 모델로서 마땅함을 논함	1902.2.22	2
5	공덕을 논함	1902.3.10	3
6	국가사상을 논함	1902.3.24	4
7	진취모험을 논함	1902.4.8	5
8	권리사상을 논함	1902.4.22	6
9	자유를 논함	1902.5	7.8
10	자치를 논함	1902.6.6	9
11	진보를 논함	1902.6.20 1902.7.5	10.11
12	자존을 논함	1902.7.19	12.14
13	합군을 논함	1902.9.16	16
14	생리와 분리를 논함	1902.10.31 1902.11.14	19.20
15	의력을 논함	1903.1.13	24
16	의무사상을 논함	1903.2.26	26
17	상무를 논함	1903.3.27 1903.4.11	28.29
18	사덕을 논함	1903.10.4 1903.11.2	38-39 40-41 46-48
19	민기를 논함	1906.1.6	72
20	정치능력을 논함	1904.6.28 1905.2.4	49.62

표2. 대한제국시기 양계초 논설 관련 자료 목록[47)]

46) 李國俊 編.『梁啟超著述系年』, 復旦大學出版社, 1986년 p45-79 참조.

발표 시기	제 목	게재 지면	원문 출처
1906.09.15-10.15	教育政策私議, 장지연 역	《대한자강회월보》 제3-4호	《신민총보》 8,1902 『음빙실문집』,1905
1906.12.18-12.28	讀意大利三傑傳	《황성신문》	『意大利三傑傳』 《신민총보》 9.10.14-17.19.22, 1902 『음빙실문집』,1905
1907.09.25	保教가 非所以尊孔子, 황주헌 역	《대동일보》	《신민총보》 2, 1902 『음빙실문집』, 1905
1907.11.01	모험용진은 청년의 천직, 金河琰 역술	《서우》 제12호	『신민설』 《신민총보》 5,1902 『음빙실문집』, 1905
1908.04.10	飮冰室自由書, 전항기 역	탑인사	《신민총보》,1899-1906
1908.04.25	斯賓塞論日本憲法語 (원문)	《대한협회회보》 제1호	『記斯賓塞論日本憲法語』 《신민총보》 42-43,1903 『飮冰室自由書』 『음빙실문집』, 1905
1908.04	匈牙利愛國家葛蘇氏傳, 이보상 역	중앙서관, 박문서관	《신민총보》 4.6.7,1902 『음빙실문집』1905
1908.06.13	이태리건국삼걸전 (국문본), 주시경 역	박문서관	《신민총보》 9.10.14-17.19.22, 1902 『음빙실문집』, 1905
1908.06.25	梁氏學說, 李沂	《호남학보》 제1호	『教育政策私議』 《신민총보》 8, 1902 『음빙실문집』, 1905
1908.07.24	讀梁啟超所著朝鮮亡國史略, 中叟	《태극학보》 24	『朝鮮亡國史略』 《신민총보》 53.54, 1902 『음빙실문집』,1905
1908.09.16-09.30	論中國今日當以競爭求和平 (譯中國魂)	《공립신보》 제99-100호	《신민총보》, 1902
1908.10.21-11.04	論國家思想 (譯中國魂)	《공립신보》 제104-105호	『신민설』 《신민총보》 4, 1902 『중국혼』, 1906 『음빙실문집』, 1905
1908.11.04-11.18	輪進取冒險精神 (譯中國魂)	《공립신보》 제106-108호	『신민설』 《신민총보》 5, 1902 『음빙실문집』,1905 『중국혼』,1906
1909.03.01-04.01	論毅力	《서북학회월보》 제 10-11호	《신민총보》 24, 1903 『신민설』 『음빙실문집』, 1905
1909.04.25	支那梁啟超新民學說	<교남교육회잡지> 제1호	《신민총보》 1902-1906 『신민설』 『음빙실문집』,1905
1912.02.05	十五小豪傑, 민준호 역	동양서원	《신민총보》 2-4.6.8.10-13, 1902

47)李國俊編. 『梁啟超著述系年』, 復旦大學出版社. 1986년 p.24-135 양계초 원문의 출처 《飮冰室文集(음빙실문집)》 의 목차 참조.